韓國服飾

第38號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目次

韓國服飾 제38호 | 2017.12

논문

갑사 구장복의 장문 복원모사 연구 ····· 5
박서림

임오년(1882)가례 『왕세자 가례도감의궤』와 「궁중불긔」 복식연구 ····· 49
안애영

조선 후기 佛畫 腹藏囊의 현황과 의미 ····· 73
오호석

한국복식 간행규정

윤리규정

갑사 구장복의 장문 복원모사 연구

박서림*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

논문요약

본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갑사구장복(중요민속문화재 제66호)의 장문을 복원모사하기 위하여 유물의 채색안료를 조사하고 장문의 제작기법과 제작과정을 고찰한 것이다. 갑사 구장복의 복원모사된 장문은 용, 산, 화, 화충, 종이와 불(黻)문이다. 장문의 복원모사는 정확한 형태 고증과 색채 재현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으며, 국립중앙박물관이 실시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형태와 색, 재료 등을 고증하였다. 갑사 구장복의 장문은 황색, 적색, 녹색, 청색, 백색 등 5색을 기본으로 하여 각 장문마다 색을 조합하여 색상을 사용하였다. 안료분석 결과 황색은 금과 황동, 적색은 주사, 녹색은 구리와 비소의 화합물, 청색은 유기안료와 연백의 혼합색, 백색은 은으로 추정되었다. 갑사 구장복의 장문 복원모사시 실제 사용된 안료는 황색은 금분과 황동분, 적색은 주사, 녹색은 석록과 석황의 혼합색, 청색은 쪽과 연백의 혼합색, 백색은 은분이다. 장문의 복원모사는 크게 현의에 그려진 5장문과 중단에 그려진 불문으로 나누어 각각 유물 조사, 밑그림 제작, 문양 모사의 세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복원모사에 쓰인 재료와 제작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였다. 갑사 구장복의 장문 복원모사 연구는 유물의 과학적 조사와 실질적 기법 연구를 바탕으로 장문의 원형을 추정하여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자 이루어졌다.

주제어 : 갑사 구장복, 5장문, 불문, 채색안료, 복원모사

* Corresponding author : Park, Seo-Rim, E-mail : danwoorim@hanmail.net
| 투고일 | 2017.11.01 | 심사개시일 | 2017.11.07 | 심사완료일 | 2017.11.20 | 게재확정일 | 2017.11.25

Ⅰ. 머리말

구장복(九章服)은 왕이 입었던 대례복인 면복(冕服) 일습 중 하나로 곤복(衮服)에 9장문(九章紋)을 그리고 수놓은 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복식이다.[1] 구장복의 9장문은 용(龍), 산(山), 화(火), 화충(華蟲), 종이(宗彝), 조(藻), 분미(粉米), 보(黼), 불(黻)이며, 이는 왕이 갖추어야 될 덕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자 왕이라는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다. 상의(上衣)인 의(衣)에는 용, 산, 화, 화충, 종이의 5장문을 그려 넣고 하의(下衣)인 상(裳)에는 조, 분미, 보, 불의 4장문을 수놓았다.[2]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구장복(신수6328, 중요민속문화재 제66호)은 총 2벌로 19세기 말 조선 말기의 것이며, 구장복중 현의(玄衣)와 중단(中單)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상과 폐슬은 유물이 남아있지 않다. 특히 현의에 사용된 직물이 하나는 은조사(銀條紗), 다른 하나는 갑사(甲紗) 재질이기에 이로 구분하여 명명하고 있다. 장문은 겉옷인 현의(玄衣)의 양쪽 어깨와 뒷면의 등, 소매 부리에 용, 산, 화, 화충, 종이의 5장문이 그려져 있으며, 현의 밑에 받쳐 입는 옷인 중단의 깃 부분에 불문(黻紋)이 그려져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11년 구장복의 복원과 복제를 위한 기초조사를 시작하였고, 의복과 구성에 사용된 직물의 종류, 장문의 안료 성분에 대한 X선 투과조사와 X선 형광분석[3]을 실시하였다.[4]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직물의 제직과 함께 복제품 제작이 이루어져 2012년에 은조사 구장복, 2015년에 갑사 구장복의 복제를 완료하였다.[5] 그중 본 연구자는 은조사·갑사 구장복의 복제품에 장문을 복원 모사하는 과정을 담당하였는데, 상당 부분 손실된 장문의 원형을 추정하여 찾기 위한 원형 모사작업으로 진행하였다.

본고에서는 2015년에 완성된 갑사 구장복의 복제품에 장문의 원형을 복원하여 모사하는 과정과 제작 기법을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갑사 구장복 장문에 사용된 안료를 조사하고 갑사 구장복의 장문을 크게 현의에 그려진 5장문과 중단에 그려진 불문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

1 국립문화재연구소(2009). 우리나라 전통무늬 직물. 서울:눌와. pp.422~423.
왕의 곤복에는 9장문을 그리며, 황제의 곤복에는 9장문에 일(日), 월(月), 성신(星辰)을 더하여 12장문을 그려 넣었다. 조선의 역대 왕들은 구장복을 착용하였으며, 대한제국 성립 이후에는 명나라 제도에 근거하여 십이장복을 착용하였다.

2 박승원(2013). 조선시대 복식유물의 복원과 복제. 동원학술논문집 14. pp.512~536.
현의에 장문을 그려주는 것은 양(陽)을 상징하고 상과 폐슬에 장문을 수놓는 것은 음(陰)을 뜻한다.

3 국립중앙박물관(2016). 『보존과학』(서울:국립중앙박물관), p.139.
X선 형광분석법(일명 XRF)은 X선의 형광 현상을 이용하여 물질의 성분 원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문화재를 파괴하지 않고도 분석이 가능하다. X선을 문화재에 조이면 구성 원소가 스스로 자신의 형광 X선을 발생시키며 형광 X선은 원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성분 원소로 만들어졌는지 밝혀 낼 수 있다.

4 윤은영, 강형태(2014). 은조사 구장복의 채색안료 분석. 박물관보존과학 제 15집. pp.66~77.

5 국립중앙박물관(2016). 앞의 책. p.148.

Ⅱ. 갑사 구장복의 채색안료 조사

갑사 구장복의 장문은 현의에 5종의 장문과 중단에 불문이 그려져 있다.

구장복의 현의(玄衣)는 가장 겉에 입는 상의로 현색(玄色)의 의(衣)이다. 갑사 구장복의 현의에는 5장문이 그려졌는데 용, 산, 화, 화충, 종이의 문양이다.(그림 1, 2) 현의의 양 어깨에는 용, 등에는 산, 양 소매에는 화, 화충, 종이의 문양이 그려져 있다. 현의 앞면에서 보면 양 어깨에 용의 모습이 반만 보이며, 현의 뒷면에서 보면 용의 나머지 모습이 보이고, 소매 끝에 산, 화, 화충, 종이의 문양이 모두 보인다.(그림 3, 4) 이렇게 뒷면에서만 문양이 보이는 것은 옷을 입었을 때 보이는 장문을 고려한 것으로 구장복을 입을 때 소매는 늘 공수를 한 자세이기 때문이다.[6]

그림 1. 갑사 구장복 현의 앞면

그림 2. 갑사 구장복 현의 뒷면

그림 3. 갑사 구장복 현의 앞면의 장문

6 이민주(2013). 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 경기도:한국학중앙연구원. pp.47~49.

그림 4. 갑사 구장복 현의 뒷면의 장문

그림 5. 갑사 구장복 중단

그림 6. 갑사 구장복 중단 불문

구장복의 중단은 의와 상 안에 받쳐 입는 옷으로 홑옷이며 받침옷의 역할을 한다. 『국조오례의서례』에는 백색의 증(繒)으로 만들며 청색으로 깃, 소매부리, 단에 선을 두르며 깃에는 11개의 불문을 그린다고 했다.[7] 그러나 갑사 구장복의 중단은 백색이 아니라 청색으로 만들어졌으며 깃, 소매부리, 밑단에 검은색 선을 두르고 깃에는 불문 11개가 그려져 있다. (그림 5, 6)

갑사 구장복의 장문에 쓰인 채색 안료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추정하였다. 분석법은 X선 형광분석으로 안료에 대하여 비파괴 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은조사 구장복[8] 과 갑사 구장복에 그려진 5장의 장문과 아(亞)자형 불문은 서로 동일하다고 결론지었다.

5종의 장문과 불문에 쓰인 색상을 국립중앙박물관의 안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정

7 앞책. pp.53~54.
8 윤은영, 강형태(2014). 앞의 책. pp.66~77.

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색상은 총 다섯 가지 색상이 쓰였으며 황색, 적색, 녹색, 청색, 백색이다. 앞서 은조사 구장복에 실시하였던 1차 조사에 이어 1차 조사에서 실시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은조사 구장복 조사(2012년)시 용은 황색, 적색, 녹색이 쓰인 것으로 나왔으나, 갑사 구장복 조사(2015년)에서 백색과 청색이 추가로 밝혀졌다. 따라서 그 결과를 정리하면 용과 화충은 황·적·녹·청·백의 다섯 가지 색상이 모두 사용되었으며, 종이는 황·적·녹·백의 네 가지, 산은 황·녹·청의 세 가지, 화는 적, 불문은 황의 한 가지 색상이 사용되었다. 갑사 구장복의 장문은 황색, 적색, 녹색, 청색, 백색 등 5색을 기본으로 하여 각 장문마다 색을 조합하여 색상을 사용하였다.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대표적인 색상은 황색, 적색, 녹색, 청색, 백색, 흑색 등인데 갑사 구장복의 장문에서 흑색이 빠진 것은 장문의 바탕색이 흑색에 가까운 현색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장문의 색상을 재현하기에 황색, 적색, 백색의 경우 단일 주성분의 안료가 쓰였기에 비교적 용이하였으나 녹색과 청색의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다. 따라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안료 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색의 주성분을 파악한 뒤에 현존하는 가장 근접한 재료를 구하고자 하였다.

황색은 장문의 경우 주성분 Au의 금(金)으로 추정되었다. 금은 인류가 구리 다음으로 사용한 금속으로 장식성, 희소성, 균질성, 전연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애용되어 왔다.[9] 금은 노란색의 금속 광택이 나며, 공기 중에서 전혀 부식되지 않고 다른 화학변화도 일으키지 않으며, 표면의 색이 그대로 보존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금은 회화에서는 주로 금박(金箔)이나 금분(金粉)으로 사용하는데, 금분은 금을 미세하게 분말형태로 만든 것을

표 1. 5 장문과 불문에 사용된 색상과 추정 안료

색명	색상	주성분	추정 안료	사용된 장문
황색		Au	금	용, 화충, 종이, 산, 불문
		Cu, Zn	황동	불문
적색		Hg	주사	용, 화충, 종이, 화
녹색		Cu, As	석청+석황 구리+비소 화합물	용, 화충, 종이, 산
청색		Pb	청색 유기 안료+연백	용, 화충, 산
백색		Ag	은	용, 화충, 종이

9 최윤정(2005). 복식에 활용된 금(Gold)의 미적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5~7.

그림 7. 금분

그림 8. 왼쪽부터 석황, 석록, 석청, 주사의 천연안료

말하며, 가루상태의 금을 아교에 개어 물감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금분을 금니(金泥)라고 한다.[10] 순도 99%의 금분을 사용하고자 한다.(그림 7) 그러나 불문의 경우 색상은 황색 한 가지이지만 특이하게도 두 가지 재료가 사용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안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테두리는 금(Au), 내부는 황동(Cu+Zn)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1809년에 탄생한 황동(黃銅)은 구리(Cu)와 아연(Zn)의 합금으로 구리와 아연을 섞으면 구리의 색이 밝아지면서 노란빛을 띠는데, 이 색상이 금색과 비슷하다. 따라서 황동은 고가인 금의 대체 안료로 추정된다. 20세기 초에 제작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적의본의 운룡문에도 황색으로 금 대신 황동을 사용하여 금처럼 보이게 한 예가 있다.[11]

적색은 주성분 Hg의 주사(朱砂, HgS)로 추정되었다. 주사는 광물성 천연안료로 주성분은 수은과 황의 결합물인 황화수은이며, 진사(辰砂)라고도 한다. 천연 주사는 고대부터 사용된 가장 품질이 좋고 일반적으로 쓰는 적색안료이다.(그림 8)[12] 가장 품질이 좋은 주사는 표면이 거울과 같이 빛나고 매끄러운 경면주사(鏡面朱砂)이다.[13] 주사는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천연안료 중의 하나이지만 황화물이기에 납(연분)이나 구리 성분을 가진 안료와 만났을 때는 안정적이지 않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사는 색이 검게 변하는 경우가 많으며, 빛에 민감하다.[14]

녹색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의 안료 분석 결과 구리(Cu)와 비소(As)가 주성분인 녹색물질을 혼합하여 만든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녹색안료의 종류를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렵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하나는 황색의 석황(As_2S_3)과 청색의 석청($2CuCO_3 \cdot Cu(OH)_2$)을 혼합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과 다른 하나는 인공적으로 만든 녹색 안료인 셸레 그린

10 서수영(2011). 한국회화에서의 금(금) 표현기법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4.
11 윤은영, 강형태(201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적의본과 폐슬본 채색 안료 및 염료 분석. 박물관보존과학 제13집. p.19.
12 중국에서는 기원전부터 수은과 유황으로 주사를 인공적으로 제조하기도 하였다. 정종미(2001). 우리 그림의 색과 칠. 서울:학고재. p. 65.
13 앞의 책. p. 65.
14 국립중앙박물관(2016). 앞의 책. p.58.

(Scheele's green, $CuHAsO_3$)[15]이나 에메랄드 그린(Emerald green, $Cu(C_2H_3O_2)_2 \cdot 3Cu(AsO_2)_2$) 등의 양록(洋綠)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거론되었다.

우선 석청(주성분 : Cu)과 석황(주성분 : As)의 혼합색은 색채 실험 결과 유물의 색상과 유사하지 않았다. 석청은 동광맥에서 산출되는 염기성 탄산구리이며, 광물명은 남동광(藍銅鑛)으로 동서양에서 청색 안료로 널리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양록은 19세기 이후 국내에 들어와 20세기 후반까지 많이 사용된 서양의 인공 녹색 안료로 중국에서 들여온 녹색 안료와 구분하여 지칭하는 안료명이다. 양록이라는 안료명이 우리나라에서는 1877년 『진찬의궤』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실제 19세기부터 어진과 병풍 등의 회화나 단청 등에서 채색안료로 사용된 기록들이 있다.[16] 양록에는 일반적으로 셸레 그린과 에메랄드 그린이 있다. 셸레 그린은 셸레녹(綠)이라고도 하며, 1778년 스웨덴의 화학자인 셸레(Scheele, 1742~1786)에 의하여 제조된 인공 녹색 안료로 독성이 있는 황색을 띤 녹색 안료이다. 에메랄드 그린은 1814년 독일의 슈바인푸르트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인공 녹색 안료인데,[17] 처음에는 셸레그린을 개량하기 위해 개발된 안료이다.[18] 에메랄드 그린은 염기성 비산염 구리가 주성분으로 밝은 청록색을 띠며 광택이 있으며, 무기안료 중에 가장 밝으며, 우수한 은폐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황을 함유한 공기와 안료, 열에 의해 흑변하며[19] 모든 안료 중 가장 유독하여 인체에 치명적이므로 현재는 생산이 금지된 상태의 안료이다.[20]

따라서 본인은 맹독성인 양록의 안료를 대체할 안료를 찾아야 했으며, 인공안료를 제외한 천연안료로 채색 실험을 한 결과 석록($CuCO_3 \cdot Cu(OH)_2$, 주성분 : Cu)과 석황(As_2S_3, 주성분 : As)의 혼합색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지었다.

유물의 녹색에 사용된 양록은 본래 천연안료인 석록을 대신하여 많이 사용된 인공합성안료이기 때문에[21] 본인은 원래의 천연안료인 석록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석록(石綠)은 가장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온 녹색 안료로 천연의 염기성 탄산구리가 주성분이며, 광물명은 공작석(孔雀石, Malachite)[22]이다. 석록의 명칭은 녹청(綠靑), 편청(扁靑),

---

15 강규성(2011). 녹색 무기안료의 재현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7.

16 신현옥(2007). 조선시대 채색재료에 관한 연구–의궤에 기록된 회화의 채색재료를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48~51.

17 강규성(2011). 앞글. p.27.

18 허우영(2009). 인공합성 안료 에메랄드 그린의 한국화 사용에 대하여. 제 1회 (사)한국장황연구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장황연구회. p.57.

19 에메랄드 그린은 오일과 바니시 용제에서는 영구적이다. 강규성(2011). 앞글. p.27.

20 정종미(2001). 앞책. p.100.

21 정종미(2001). 우리 그림의 색과 칠. 서울:학고재. p.100.

22 석록은 마치 공작의 깃털과 같은 무늬를 띠고 있다고 하여 공작석이라고도 한다. 이상현(2010). 전통회화의 색. 서울:결. pp.4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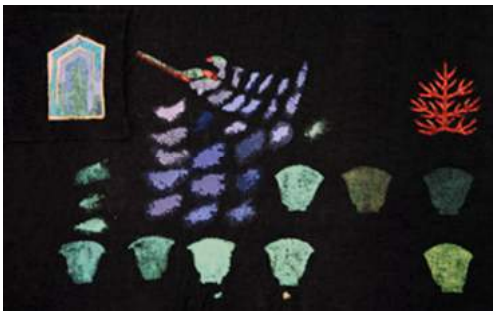


그림 9. 색상 실험

그림 10. 석록(좌)과 석록·석황의 혼합색(우)

대록(大綠), 두록(頭綠), 이록(二綠), 삼록(三綠) 등으로 다양하다.[23] 석록은 강한 빛에도 색이 변하지 않고 안정적이기에 현재까지도 안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24] 다만 석록은 고가이기에 석록을 대신하여 19세기에 양록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대한제국 시기의 왕실과 각 아문에 소요되는 물자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책인 『탁지준절(度支準折)』에 의하면 양록이나 양청은 전통안료인 석록이나 석청에 비해 싸서, 이들을 대체하기 위해 많이 쓰인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가 있다.[25]

그러나 석록만으로는 유물에 사용된 양록의 밝은 녹색을 재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석록의 색감을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래 녹색빛이 강한 황색을 띠는 괴화와 섞어 사용한다는 기록이 있다.[26] 그러나 안료 성분에서 구리(Cu)와 비소(As)가 나왔기에 비소 성분의 황색 안료인 석황을 염두에 두었다. 따라서 재료와 색을 고증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색 실험을 실시하였다.(그림 9) 원래 광물성 안료들은 식물성 안료처럼 서로 섞어서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입자와 비중이 서로 달라서 잘 섞이지 않기 때문이다. 혹 섞어서 사용하려면 위에 뜬 물을 사용해야 하며, 혼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색 위에 올려서 색감을 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27] 그러나 석황은 석록과 안료의 성질이 비슷하여 다행히도 잘 섞여 석록보다 보다 밝은 녹색을 만들어 냈다.(그림 10) 석황(石黃)은 황화비소가 주성분인 천연의 비소화합물로 웅황(雄黃), 자황(雌黃)이라고도 한다. 전통회화의 황색으로 석록·석청과 같이 소중히 다루어졌던 천연안료이다.[28] 석황은 주로 선명한 노란색이나 갈색을 띠는 노란색을 표현하는데 사용했으며, 다른 색의 안료와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했다.[29] 그 예로

23 강규성(2011). 앞글. p.20.
24 국립중앙박물관(2016). 앞책. p.58.
25 강규성(2011). 앞글. p.27.
26 정종미(2001). 앞책. p.61.
27 고정한(1999). 전통회화에 사용된 천연재료 연구–견, 아교, 백반 및 천연안료에 관하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7.
28 이상현(2010). 앞책. pp.38~39.

우리나라 낙랑 왕우묘(王旰墓, 1세기)에서 출토된 칠기의 녹색은 석황에 유기계의 청색 안료를 혼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30] 또한 구장복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적의본 및 폐슬본의 채색안료 조사에서 석황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31] 구장복 장문을 모사하는데 석황을 사용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그 결과 본인은 양록을 대체할 안료로 석록과 석황의 혼합색으로 정하였으며, 주성분을 구리(Cu)와 비소(As)로 맞추었다.

청색의 경우 주성분이 Pb이고 유기 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주성분이 Pb인 연백(鉛白, $2PbCO_3 \cdot Pb(OH)_2$)(그림 11)과 청색의 유기안료로는 쪽(그림 12)의 사용이 일반적이므로 쪽의 혼합색으로 규정지었다. 연백은 연분(鉛粉), 당분(唐粉)이라고도 하며,[32] 고대부터 근세회화에 사용된 가장 오래된 합성무기안료로 가장 오래된 인공 안료 중 하나이다. 굴절률과 은폐력이 뛰어나 안료를 고착시키는 아교와 같은 재료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연백은 납의 화합물이기 때문에 습도가 높으면 흑색으로 변색되거나[33] 대기 중의 황화수소와 반응하여 흑색으로 변한다는 점[34], 화장용으로 쓰였던 연백이 피부에 해가 된다는 점, 양질의 백아가 산출되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하여 현재는 사용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백색 안료이다.[35] 쪽은 인디고(Indigo), 남(藍), 청화(靑花), 청대(靑黛), 남전(藍澱) 등으로 불리우며, 기원전 16세기에 이집트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식물성 청색 염료이다.[36] 착색력이

그림 11. 연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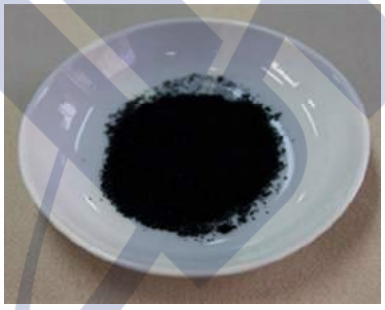


그림 12. 쪽

그림 13. 은분

29 국립중앙박물관(2016). 앞책. p.58.

30 정종미(2001). 앞책. pp.56~57.

31 윤은영, 강형태(2012). 앞글. pp.13~22.

32 중국에서는 백색안료를 호분(胡粉)과 합분(蛤粉)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는데, 호분이 연백을 지칭한다. 장은지(2005). 회화에 사용된 백색안료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61.

33 장은지(2005). 앞글. p.23.

34 국립중앙박물관(2016). 앞책. p.58.

35 현재 백색은 연백에서 호분(胡粉)으로 대체되고 있다. 호분은 조개와 같은 패각류를 불에 태워 만든 후 수비해서 만드는데 연백에 비해 독성이 없고 가공하기 쉬운데다 저렴하기 때문에 점차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2016). 앞책. p.58.

36 국립중앙박물관(2016). 앞책. p.58.

표 2. 유물의 추정 안료와 복원 모사시 사용할 안료

색명	주성분	유물의 추정 안료	복원 모사시 사용할 안료
황색	Au	금	금분
적색	Hg	주사	주사
녹색	Cu, As	구리+비소 화합물	석록+석황
청색	Pb	청색 유기 안료+연백	쪽+연백
백색	Ag	은	은분

매우 좋고 견뢰도가 강해 직물과 종이를 염색하는 재료 뿐 만 아니라 회화에서도 안료로 사용되고 있다.[37]

백색의 경우 현재의 유물에서는 거의 색이 남아있지 않거나 회색 또는 흑색으로 보여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여러 번 모사를 하고 형태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백색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백색은 주성분이 Ag로 은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백색은 은분(그림 13)으로 추정되었다.

유물의 추정 안료와 복원 모사시 사용할 안료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Ⅲ. 현의의 5장문 복원모사

장문의 복원모사 과정은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유물 조사이며, 다음으로 밑그림 제작이며, 마지막으로 문양 모사 과정이다. 유물 조사에서는 먼저 대상 유물을 실견하여 전체적인 특징과 세부적인 묘사 방법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이 실시한 유물의 안료 분석과 색채 성분의 추정 결과를 숙지한 뒤 가장 가까운 재료를 찾아낸다. 밑그림 제작에서는 장문의 정확한 형태 고증을 위하여 원형 복원모사를 원칙으로 하며 박락된 형태를 미루어 짐작하고 추정하여 온전한 형태의 밑그림으로 그리고 밑그림을 옷감에 고정시키는 것이다. 문양 모사는 문양을 옷감에 실재로 재현하는 과정으로 정확한 색채 재현을 위하여 색상을 단계별로 나누어 그려 장문을 완성하는 것이다.

현의에 그려진 5장문을 복원모사하기 위하여 용, 산, 화, 화충, 종이의 순으로 각각 유물조사, 밑그림 제작, 문양 모사 과정의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37 이상현(2010). 앞책. pp.155~157.

1. 용(龍)

(1) 유물 조사

용(龍)은 동양을 대표하는 상상의 동물이다.[38] 동양에서 용은 물을 대표하는 동물로 여겨지며,[39] 용은 무궁한 신기 변화와 조화 능력을 의미한다.[40] 용 무늬를 쓰는 것은 용의 '신묘한 변화'를 취하기 위해서이며, 용은 군주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41] 물 속에 살지만 하늘에 오를 수도 있는 용은 양기(陽氣)가 변화한 것이라 여겨

그림 14. 갑사 현의 앞면의 용

그림 15. 갑사 현의 뒷면의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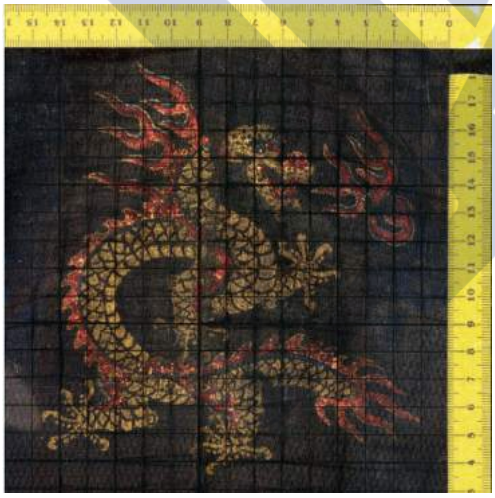


그림 16. 갑사 현의 오른쪽 어깨의 용

그림 17. 갑사 현의 왼쪽 어깨의 용

38 차혜정(1997). 용그림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pp.4~5.
용의 형태는 낙타의 머리, 사슴의 뿔, 뱀의 동체, 잉어의 비늘, 매의 발톱, 독수리의 날개 등 충어조수의 부분적 형태를 합하여 형상화된 형체로 고정적 상태가 없으며, 시대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39 최연우(2015). 면복. 서울:문학동네. pp.104~105.

40 국립문화재연구소(2009). 앞책. pp.422~423.

41 최연우(2015). 앞책. pp.104~105

져 하늘을 상징하며, 자유자재로 신통력을 부릴 수 있는 용과 같이 상황에 맞게 적절한 사고와 대처를 하는 것은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군주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었던 것이다.[42]

갑사 구장복 현의의 어깨 양쪽에는 다섯 발가락을 가진 오조룡(五爪龍)이 한 마리씩 총 두 마리가 그려져 있다. 용의 머리와 꼬리는 구장복 현의의 앞면에 있으며 몸통은 뒷면에 나뉘어져 위치하고 있다.(그림 14,15,16,17)

갑사 구장복 현의의 용에 사용된 안료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3)

백색의 경우 은(Ag)과 연백($2PbCO_3 \cdot Pb(OH)_2$)의 두 가지 안료가 쓰였다. 은의 경우 앞서 은조사 구장복의 용문 복원시 용의 뿔과 이빨, 발톱, 코 옆 수염과 턱 수염 부위를 육안으로 추정하여 복원한 바 있다. 그 추정을 이번에 실시한 국립중앙박물관의 2차 안료 분석과 X선 투과 조사로 사실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안료가 심하게 박락되거나 회색 또는 흑색으로 변색되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은색 부분 즉 용의 뿔과 이빨, 발톱, 코 옆 수염과 턱 수염 부위가 X-선 투과 조사에서는 확연히 드러나 보였다.(그림 18, 19 비교) 특히 연백은 2차 조사에서 용의 동공에 연백을 칠한 뒤 금(Au)을 덧칠한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청색은 용 등의 중심선, 화염의 경계와 화주 사이 경계에 연백과 청색 유기안료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은조사 구장복 조사시에는 황·적·녹의 세 가지 색상만 밝혀져 세 가지 색상으로 그려졌으나, 이번 갑사 구장복 조사시에는 청색의 사용이 밝혀져 이를 용의 장문 모사에 적용하고자 한다.

황색은 금(Au)으로 용의 머리, 몸통, 발가락, 화염과 지느러미 외곽선, 동공 등에 사용되었다.

표 3. 갑사 구장복 용에 사용된 안료 분석 결과

장문	색명	주성분	추정안료	사용안료	위치
용	백색	Pb	연백	연백	동공 아래
		Ag	은	은분	뿔, 코 옆 수염, 턱 수염, 이빨, 발톱
	황색	Au	금	금분	머리, 몸통, 발가락, 화염과 지느러미 외곽선, 동공
	적색	Hg, S	주사	주사	화염, 몸통 갈퀴
	녹색	Cu, As	구리+비소 화합물	석록+석황	여의주, 턱 밑 갈퀴, 다리 갈퀴
	청색	Pb	청색유기 안료+연백	쪽+연백	용 등의 중심선, 화염 경계, 화주 사이 경계

42 앞책. pp.104~105.

그림 18. 갑사 현의 용 문양

그림 19. 갑사 현의 용 문양 X선 투과 조사

적색은 주사(HgS)로 화염과 용의 몸통 갈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녹색은 여의주와 용의 턱과 다리 갈퀴에 유물에서는 에메랄드 그린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복원 모사시에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록과 석황의 혼합색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 밑그림 제작

용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용의 형태 복원이었다. 유물에 남아있는 용의 모습은 특히 용의 머리 부분 중 뿔과 수염, 이빨의 안료가 현재 많이 박락되고 손상되어 있었다.(그림 18) 은조사 구장복 복원시에는 형태를 육안으로 알아보기 힘들기에 정확한 형태를 위한 고증 작업이 요구되었었다. 용의 형태를 밝히기 위하여 국내의 여러 용 그림과 중국의 용 자료를 참고하고 특히 복식에 관련된 자료들을 참고하여 용의 형태를 복원하였다. 유물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은색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증하였다. 미술사와 복식사, 과학적인 조사 등 현재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복원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미진한 부분은 화가의 상상력을 동원하였었다. 그러나 이번 갑사 구장복 복원모사시에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X선 촬영 조사로 인하여 사라진 형태의 많은 미진한 부분을 다행히도 해결할 수 있었다.(그림 19)

밑그림 제작 과정에서는 우선 정확한 치수와 위치를 확인한 후 실사 사진을 이용하여 밑그림을 투명한 아세테이트지에 가는 유성펜으로 그대로 옮겼다.(그림 20) 밑그림을 옮기는

데 보통 사용하는 트레싱지나 트레팔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투명 아세테이트지가 투명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보다 정확한 밑그림을 옮기기 위한 방법으로 투명 아세테이트지를 사용하여 밑그림을 만든 다음 복사를 하여 종이 밑그림을 준비하였다. 복사된 종이 밑그림을 정확한 위치에 움직이지 않도록 실로 고정하였다.(그림 21) 유물에서 정확한 치수를 확인한 다음 위치를 정하여 시침질을 하였다. 그러면 대부분 밑그림이 옷감 아래로 비춰 보여서 그 위에 그림을 그리면 된다. 그러나 용 부분은 옷감이 두 겹으로 되어 있으며, 옷감의 무늬가 있어서 밑그림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그림 22) 라이트박스를 사용해도 보이지 않았기에 밑그림을 보기 위한 다른 새로운 방법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종이 밑그림을 시침질하여 위치를 정한 다음 옷감 위쪽으로 다시 황색 수성 먹지를 사용하여 밑그림을 옮겼다. 황색 수성 먹지를 옷감에 실험해 보니 용의 세세한 부분까지 표현이 가능했으며, 물로 칠하면 수성이기에 자국이 지워졌다.(그림 23) 또한 황색 수성 먹지를 사용한 이유는 용의 색에 황색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색 수성 먹지를 사용하여 다시 밑그림을 직물에 옮겼다.(그림 2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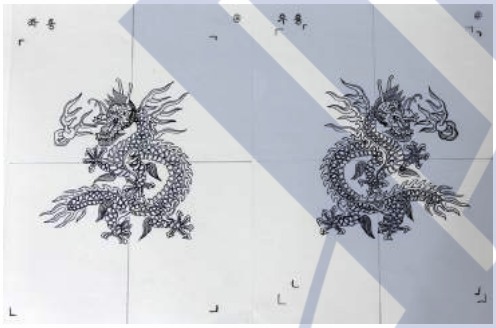


그림 20. 아세테이트지에 옮긴 용의 밑그림

그림 21. 실로 고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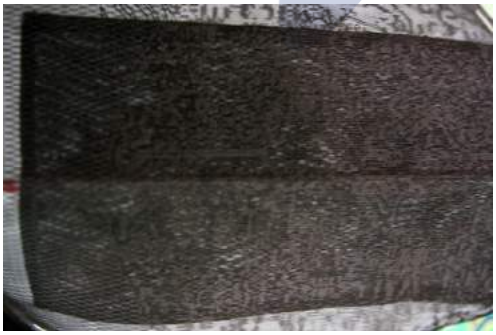


그림 22. 밑그림이 보이지 않는 어깨 부분

그림 23. 황색 수성 먹지 실험하기

그림 24. 황색 수성 먹지로 옮긴 밑그림1

그림 25. 황색 수성 먹지로 옮긴 밑그림2

(3) 문양 모사

문양 모사 과정은 색채 고증을 바탕으로 현존하는 근사한 재료를 구하여 준비한 다음 장문을 색상의 단계에 따라 그린 후 밑그림을 분리하여 완성하는 과정이다.

용을 그리는 과정은 색상의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순서는 기록이나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물 조사에 의한 추정과 화가로서의 경험과 편의에 의한 순서임을 먼저 밝히는 바이다.

① 황색Ⅰ(금) → ② 적색(주사) → ③ 백색(은) → ④ 녹색(석록+석황) → ⑤ 청색(쪽+연백) → ⑥ 황색Ⅱ(금)

황색이 먼저 그려지는 이유는 용 형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용의 코 부분에서 적색 위로 황색이 올려져 있기에 적색이 가장 먼저 칠해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심도 있는 분석 결과 황색을 처음과 마지막에 두 번으로 나누어 작업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따라서 용의 머리와 몸체를 황색인 금으로 그렸다.(그림 26)

적색인 주사로 용 머리의 붉은 부분인 코와 눈 주변, 귀 속, 혀와 입 등을 그리고 화염과 지느러미 부분을 그렸다.(그림 27)

백색인 은으로 용의 뿔, 수염과 이빨, 발톱 등을 그렸다.(그림 28) 지금 현재 백색부분은 안료의 박락이 심해 보이지 않기에 남은 자국들과 X선 촬영 결과를 근거로 그 형태를 추정해서 그렸다.

녹색으로 안료분석결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시되었는데 본인의 실험결과 석록과 석황의 혼합색이 가장 비슷하여 석록과 석황의 혼합색을 사용하였다. 녹색으로 용의 눈썹과 갈기, 여의주를 그렸다.(그림 29)

그림 26. ① 황색 I (금)

그림 27. ② 적색(주사)

그림 28. ③ 백색(은)

그림 29. ④ 녹색(석록+석황)

그림 30. ⑤ 청색(쪽+연백)

그림 31. ⑥ 황색II(금)

그림 32. 완성된 용 문양

그림 33. 복원모사된 왼쪽 어깨 용

그림 34. 복원모사된 오른쪽 어깨 용

청색의 경우 연백과 청색 유기 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쪽과 연백의 혼합색으로 정하고 유사한 청색을 만들었다. 청색으로 용의 눈과 화염부분, 등의 중심선 등을 그렸다.(그림 30)

마지막으로 황색인 금으로 화염과 지느러미의 외곽선을 그리고 화룡점정(畵龍點睛)을 하여 마무리하였다.(그림 31) 눈을 그릴 때 화염과 지느러미의 외곽선을 나중에 긋는 이유는 청색과 적색 위로 금색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금색을 두 번으로 나누어 그렸다. 특히 동공을 그릴 때 안료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백으로 동공의 크기와 동일하게 먼저 그린 후 그 위에 황색인 금으로 마무리 하였다.

이상으로 살펴 본 바와 같이 용은 6가지 색상의 순서대로 채색을 한 뒤 충분히 말린 후 밑그림을 분리하여 용 문양 모사를 완성하였다.(그림 32, 33, 34)

2. 산(山)

(1) 유물 조사

산은 그 자체로 흙을 의미하는데 흙은 곧 땅을 대표하고 산은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고 여겼다. 산은 바람과 구름을 일으켜 신적인 비범함을 나타내고 고개를 들어 우러러 볼 수 있는 존재의 상징으로 여겨졌다.[43] 산은 천하를 지휘하는 능력을 상징하고,[44] 군주는 백성이 우러러볼 수 있는 어진 존재가 되어야 함을 상징한다.[45]

갑사 구장복 현의의 뒷면 가운데에는 봉우리가 다섯 개인 오악(五嶽)이 그려져 있다.(그림 35) 오악은 중국에서 가장 높다는 전설상의 산인 곤륜산을 뜻하는데, 이는 왕이 구름과 비를 능히 일으키는 산의 조화로움과 신중한 성격을 취하여 사방을 진중 안정케 함을 뜻한다.[46]

현재 갑사 구장복 유물의 오악은 안료 박락이 심해 은조사 구장복의 산과 비교했을 때 산의 내부 형태가 잘 보이지 않는다.(그림 36) 따라서 산의 밑그림 제작시 산의 형태가 비교적 남아있는 은조사 구장복의 산 문양을 참조하고자 하였다.(그림 37)

산에 사용된 색상은 녹색과 청색, 황색의 세 가지 색상으로 용에 사용된 안료와 동일하다.(표 4) 녹색은 산 전체에 칠해져 있으며, 청색은 다섯 개의 산봉우리 부분에 칠해져 있으며, 황색은 산의 외부와 내부의 윤곽선에 사용되었다.

---

43 최연우(2015). 앞책. pp.105~106.
44 국립문화재연구소(2009). 앞책. pp.422~423.
45 최연우(2015). 앞책. pp.105~106.
46 임영주(2007). 한국의 전통문양. 서울:대원사. pp.214~218.

그림 35. 갑사 구장복 현의 뒷면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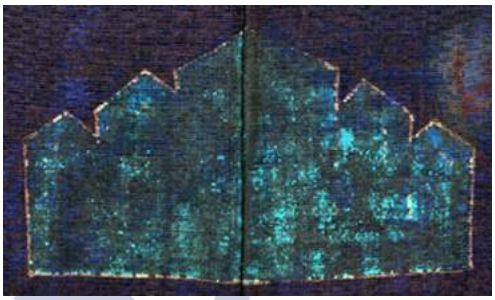


그림 36. 갑사 구장복의 산

그림 37. 은조사 구장복의 산

표 4. 갑사 구장복 산에 사용된 안료 분석 결과

장문	색명	주성분	추정안료	사용안료	위치
산	녹색	Cu, As	구리+비소 화합물	석록+석황	산 전체
	청색	Pb	청색유기안료+연백	쪽+연백	산봉우리 부분
	황색	Au	금	금분	산의 외부, 내부 윤곽선

(2) 밑그림 제작

밑그림 제작 과정에서는 우선 정확한 치수와 위치를 확인한 후 실사 사진을 이용하여 밑그림을 투명한 아세테이트지에 가는 유성펜으로 그대로 옮겼다.(그림 38) 이 때 잘 보이지 않는 산의 형태 복원을 위하여 은조사 구장복의 산의 형태를 참고하였다.(그림 37) 투명 아세테이트지를 사용하여 밑그림을 만든 다음 복사를 하여 종이 밑그림을 준비하였다. 복사된 종이 밑그림을 정확한 위치에 움직이지 않도록 실로 옷감에 고정하였다.(그림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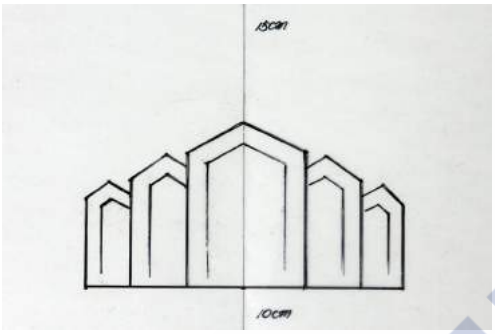


그림 38. 아세테이트지에 그린 산 밑그림

그림 39. 종이 밑그림을 실로 고정하기

(3) 문양 모사 과정

산을 그리는 색상의 순서는 전체적으로 녹색, 청색, 황색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① 녹색(석록+석황) → ② 청색(연백+쪽) → ③ 황색(금)

밑그림(그림 40) 위에 녹색으로 산의 바탕을 먼저 칠하는데 한번에 진하게 칠하는 것이 아니라 4번으로 나누어 칠하였다.(그림 41,42,43,44) 다음으로 산의 모양을 따라 산봉우리 위쪽으로 청색을 칠하는데 역시 3번으로 나누어 칠하였다.(그림 45,46,47) 특히 청색은 위

그림 40. 밑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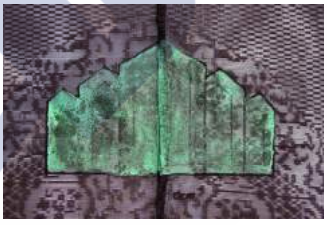


그림 41. 녹색 1차 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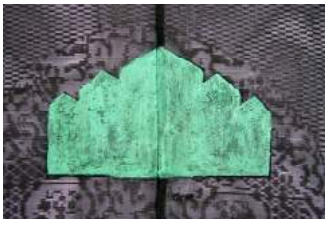


그림 42. 녹색 2차 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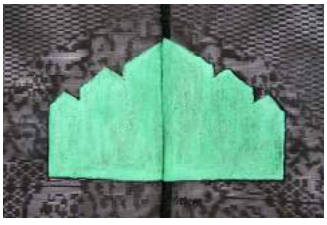


그림 43. 녹색 3차 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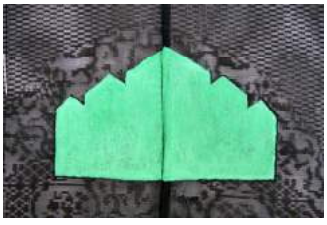


그림 44. 녹색 4차 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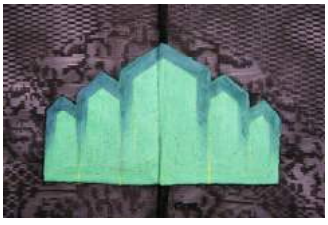


그림 45. 청색 1차 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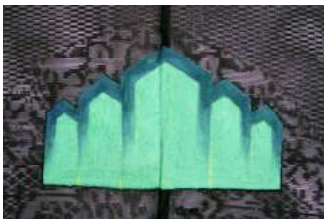


그림 46. 청색 2차 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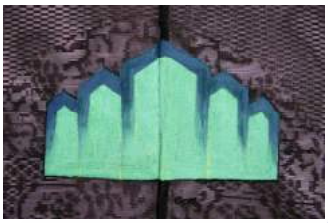


그림 47. 청색 3차 채색

그림 48. 황색 윤곽선 그리기

그림 49. 복원모사된 산

그림 50. 복원모사된 현의 뒷면 산

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레 사라지도록 채색하였다. 마지막으로 황색인 금으로 산의 테두리 선을 그어 산을 완성하였다.(그림 48, 49, 50)

특히 청색의 경우 처음에는 화충에 사용된 청색과 서로 다른 색상인줄로 알았으나 결국 같은 색상으로 결론지었다. 다만 산에 사용된 청색의 경우 화충과 달리 녹색 위에 청색이 칠해지면서 마치 다른 색으로 보이는 현상이었다.

3. 화(火)

(1) 유물 조사

화(火)는 활활 타오르는 불을 무늬로 표현 것이다. 불은 고대 원시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꼭 필요했기에 오래전부터 생산력과 권력의 상징이었다.[47] 화는 밝게 빛나는 덕을 상징한다.[48] 화 무늬를 쓰는 것은 불의 밝음을 취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세상을 밝히는 군주가 되

47 최연우(2015). 앞책. pp.107~108.
48 국립문화재연구소(2009). 앞책. pp.422~423.

그림 51. 갑사 구장복 소매 좌

그림 52. 갑사 구장복 소매 우

그림 53. 화1

그림 54. 화2

표 5. 갑사 구장복 화에 사용된 안료 분석 결과

장문	색명	주성분	추정안료	사용안료	위치
화	적색	Hg, S	주사	주사	불꽃 전체

고, 불의 화염이 항상 위를 향해 올라가듯이 상승하는 기운을 지닌 군주가 될 것을 화 문양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함이다.[49]

갑사 구장복 현의의 뒷면 소매 끝에 그려진 장문 중 첫 번째 장문인 화는 양쪽에 세 개씩 그려져 있다.(그림 51,52,53,54)

산에 사용된 색상은 적색 한 가지 색상이며, 안료 분석 결과 주성분 Hg의 주사(朱砂, HgS)로 추정되었다.(표 5)

적색의 색상 재현을 위하여 네 가지 주사 안료(그림 55)를 구하여 색상 테스트를 실시하였다.(그림 56) 왼쪽부터 1번 안료는 가장 안료의 흡착력이 좋았으며, 2번 안료는 가장 밝은 적색에 가까웠으며, 3번 안료는 가장 반짝거림이 있었으며, 4번 안료는 적색에 가깝고 약간의 반짝거림이 있었다. 실견한 유물의 색상은 1번의 색상에서 적색이 더 있었기에 최종적으로 1번에 4번 안료를 섞어서 최대한 비슷한 색상을 만들었다.

49 최연우. 앞책. pp.107~108.

그림 55. 주사 안료 왼쪽부터 1,2,3,4

그림 56. 주사 안료 1,2,3,4 색상 테스트

(2) 밑그림 제작

밑그림 제작 과정에서는 우선 정확한 치수와 위치를 확인 한 후 실사 사진을 이용하여 밑그림을 투명한 아세테이트지에 가는 유성펜으로 그대로 옮겼다.(그림 57) 투명 아세테이트지를 사용하여 밑그림을 만든 다음 복사를 하여 종이 밑그림을 준비하였다. 복사된 종이 밑그림을 정확한 위치에 움직이지 않도록 실로 고정하였다. 소매부리에 있는 장문인 화, 화충, 종이는 하나의 밑그림으로 제작하여 고정하였다.(그림 58)

그림 57. 아세테이트지 밑그림

그림 58. 종이 밑그림을 실로 고정하기

(3) 문양 모사

화는 적색의 주사(Hg)가 사용되었으며 그려지는 순서에 따라 과정을 보여주게 되면 5단계로 전체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그림 59) 먼저 불꽃의 중심을 위에서 아래로 그린 후 위에서부터 차례로 불꽃의 가지를 좌우를 번갈아가며 그려 좌우 균형을 맞추어 완성하였다. 이는 나뭇가지를 그리는 방법과 비슷하다.

그림 59. 화가 그려지는 순서도

위와 같이 화를 그리는 순서에 따라 좌우에 3개씩 총 6개의 화를 그려서 완성하였다.(그림 60,61,62,63,64,65,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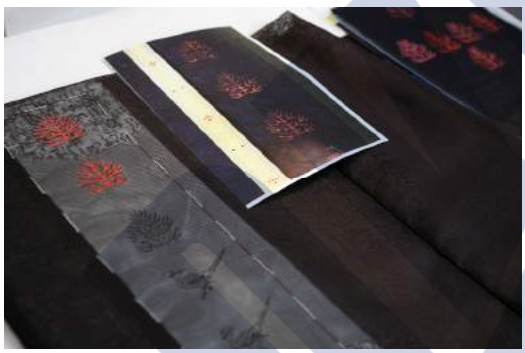


그림 60. 화를 그리는 과정

그림 61. 화1

그림 62. 화2

그림 63. 왼쪽 소매 화

그림 64. 오른쪽 소매 화

그림 65. 복원모사된 현의 뒷면 왼쪽 화

그림 66. 복원모사된 현의 뒷면 오른쪽 화

4. 화충(華蟲)

(1) 유물 조사

화충(華蟲)은 꿩으로 화(華)는 풀꽃처럼 오채색이 화려하게 들어간 것을 말하고 충(蟲)은 동물의 총칭인데 구체적으로 꿩을 말하며, 꿩 중에서도 특히 산꿩을 의미한다.[50]

화충은 문채의 화려함을 상징한다.[51] 화충 무늬를 쓰는 것은 꿩의 화려한 문채(文采)를 취하려는 것인데, 꿩의 다채로움을 통해 문식을 표현하고, 그 다채로운 문식이 군주의 인덕을 상징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52]

화충은 갑사구장복 현의의 뒷면 소매부리에 그려진 장문 중 두 번째 장문으로 세 마리씩 꿩의 머리가 소매 바깥쪽을 향하도록 그려져 있다.(그림 67,68) 또한 꿩은 한쪽 다리를 바닥에 딛고 한쪽 다리는 살짝 들어 올린 형태인데, 이는 송나라 이후부터 묘사되기 시작한 형태라고 한다.[53] (그림 69,70)

화충은 단어의 의미대로 다양한 색을 써서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녹색, 청색, 적색, 백색, 황색 등 총 다섯 가지 색상이 모두 사용되었으며, 안료는 용에 사용된 안료와 동일

그림 67. 갑사 구장복 소매 좌 화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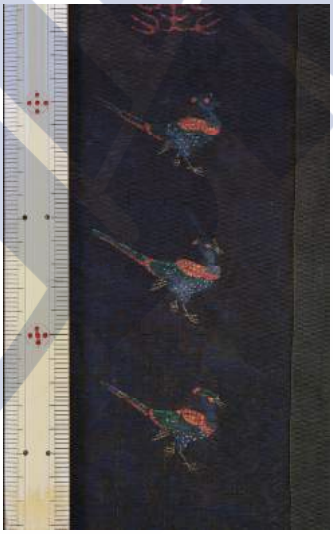


그림 68. 갑사 구장복 소매 우 화충

그림 69. 갑사 구장복 화충

그림 70. 갑사 구장복 화충

50 최연우(2015). 앞책. pp.108~109.
51 국립문화재연구소(2009). 앞책. pp.422~423.
52 최연우(2015). 앞책. pp.108~109.
53 앞책. pp.108~109.

표 6. 갑사 구장복 화충에 사용된 안료 분석 결과

장문	색명	주성분	추정안료	사용안료	위치
화충	백색	Ag	은	은분	목덜미, 중간날개
	황색	Au	금	금분	머리, 눈, 부리, 날개, 다리, 꼬리, 무늬
	적색	Hg, S	주사	주사	머리, 눈, 윗날개, 목덜미 아래, 날개와 꼬리 끝
	녹색	Cu, As	구리+비소 화합물	석록+석황	머리, 중간날개, 아랫날개, 꼬리
	청색	Pb	청색유기 안료+연백	쪽+연백	머리, 목, 몸통

그림 71. 은조사 구장복 유물의 화충

그림 72. 은조사 구장복 복원모사의 화충

하다.(표 6)

백색의 경우 은이 사용되었는데 은조사 구장복 복원 모사 작업시 흑변(黑變)한 은색과 박락된 안료를 복원 모사한 화충 자료를 참조하고자 하였다.(그림 71,72)

(2) 밑그림 제작

우선 정확한 치수와 위치를 확인한 후 실사 사진을 이용하여 밑그림을 투명한 아세테이트지에 가는 유성펜으로 그대로 옮겼다.(그림 57) 투명 아세테이트지를 사용하여 밑그림을 만든 다음 복사를 하여 종이 밑그림을 준비하였다. 복사된 종이 밑그림을 정확한 위치에 움직이지 않도록 실로 고정하였다.(그림 58)

(3) 문양 모사

화충을 그리는 색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진행되었다.

① 녹색(석록+석황) → ② 청색(연백+쪽) → ③ 적색(주사)→ ④ 백색(은) → ⑤ 황색(금)

화충을 그리는 과정은 먼저 석록과 석황의 혼합색인 녹색으로 꿩의 머리 부분과 중간 날개, 아랫날개, 꼬리 부분을 그린다.(그림 73) 잘 말린 다음 연백과 쪽의 혼합색인 청색으로 꿩의 머리와 목, 몸통을 그린다.(그림 74) 그 다음 주사인 적색으로 꿩의 머리 장식과 눈, 목덜미 아랫부분과 윗날개, 아랫날개의 끝부분과 꼬리의 아랫부분을 그린다.(그림 75) 은의 백색으로 목덜미와 중간날개를 그린다.(그림 76) 마지막으로 금의 황색으로 꿩의 머리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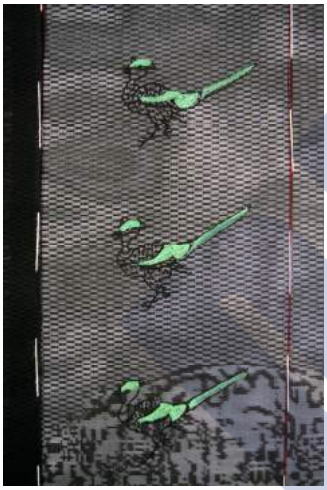


그림 73. ① 녹색(석록+석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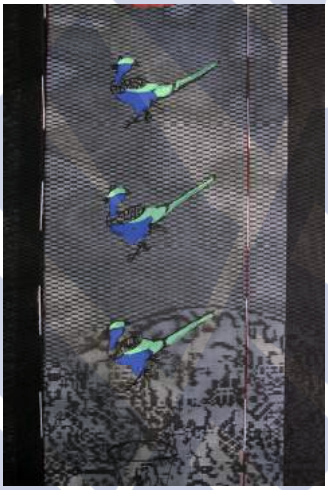


그림 74. ② 청색(연백+쪽)

그림 75. ③ 적색(주사)

그림 76. ④ 백색(은)

그림 77. ⑤ 황색(금)

그림 78. 완성된 화충

그림 79. 왼쪽 소매 화충

그림 80. 오른쪽 소매 화충

그림 81. 복원모사된 현의 뒷면 왼쪽 화충

그림 82. 복원모사된 현의 뒷면 오른쪽 화충

과 눈, 부리, 날개, 다리, 꼬리를 그려넣고 몸통에 무늬를 넣는다.(그림 77) 잘 건조한 후 밑그림을 제거하여 화충을 완성한다.(그림 78) 총 다섯 가지 색상으로 완성된 화충은 매우 다채롭고 화려하다.(그림 79,80,81,82)

5. 종이(宗彝)

(1) 유물 조사

종이(宗彝)는 종묘에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술잔으로 하나는 호랑이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원숭이를 그려 넣은 술잔이다. 호랑이는 용맹함을 상징하고 원숭이는 지혜로움을 상징한다. 원숭이는 특히 중국의 황금원숭이인데 이 원숭이는 코가 위로 들려 있는 것이 특징이며, 비가 올 때 유난히 긴 꼬리를 들어올려 자신의 코를 막아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고 하여 지혜로움의 상징이 되었다고 한다.[54] 호랑이와 원숭이 무늬를 쓰는 것은 군주가 그들의 용맹함과 지혜로움을 본받고자 함이다.

종이는 갑사 구장복 현의의 뒷면 소매부리에 그려진 장문 중 세 번째 장문으로 세 개씩 그려져 있다.(그림 83,84) 소매 왼쪽의 잔에 원숭이, 소매 오른쪽의 잔에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데, 현재 갑사 구장복 유물은 안료의 박락이 심해서 동물의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다.

54 앞책. pp.109~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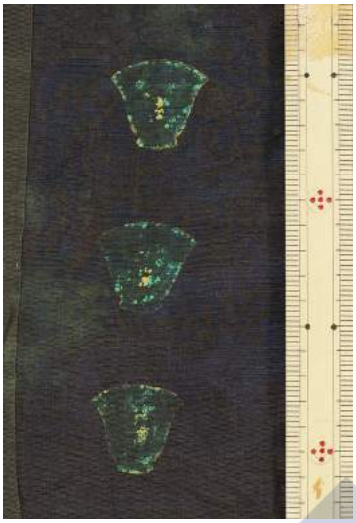


그림 83. 왼쪽 소매 종이 원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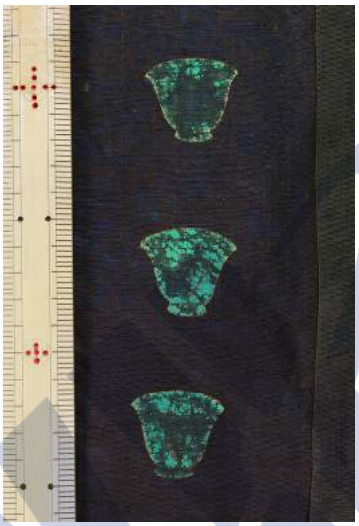


그림 84. 오른쪽 소매 종이 호랑이

그림 85. 종이 원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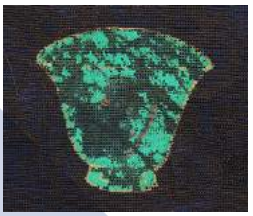


그림 86. 종이 호랑이

그림 87. 은조사 구장복 종이 원숭이

그림 88. 은조사 구장복 종이 호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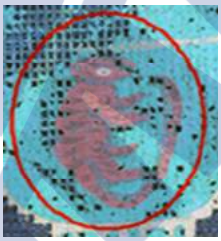


그림 89. 흑변한 은색

(그림 85,86) 따라서 동물의 형태는 비교적 형태가 온전히 남아있는 은조사 구장복을 참조하고자 하였다.(그림 87,88)

종이는 황·적·녹·백의 네 가지 색상이 사용되었으며, 녹색 술잔에 원숭이의 경우 황색의 색상이 사용되었으며, 호랑이의 경우 황색, 적색, 백색의 색상이 사용되었다.(표 7) 특히 백색의 경우 호랑이의 무늬에 은으로 그려졌는데, 은조사 구장복의 호랑이를 참고하면 현재 백색이 아닌 흑색으로 남아있다.(그림 89) 그 이유는 은색은 주(朱)와 같이 섞어 쓰거나 황화합물과 함께 사용하면 흑변하는데 호랑이 몸의 바탕색이 황화수은인 주사(朱砂, HgS)가 쓰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7. 갑사 구장복 종이에 사용된 안료 분석 결과

장문	색명	주성분	추정안료	사용안료	위치
종이	백색	Ag	은	은분	호랑이 무늬
	황색	Au	금	금분	술잔 윤곽선, 원숭이, 호랑이 눈
	적색	Hg, S	주사	주사	호랑이
	녹색	Cu, As	구리+비소 화합물	석록+석황	술잔

(2) 밑그림 제작

우선 정확한 치수와 위치를 확인 한 후 실사 사진을 이용하여 밑그림을 투명한 아세테이트지에 가는 유성펜으로 그대로 옮겼다.(그림 57) 투명 아세테이트지를 사용하여 밑그림을 만든 다음 복사를 하여 종이 밑그림을 준비하였다. 복사된 종이 밑그림을 정확한 위치에 움직이지 않도록 실로 고정하였다.(그림 58)

(3) 문양 모사

종이를 모사하는 과정은 먼저 녹색으로 술잔의 바탕을 그린 후 원숭이와 호랑이의 무늬를 각각 그려 넣는 것이다.

원숭이가 그려진 종이를 그리는 색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① 녹색(석록+석황) → ② 황색(금) → ③ 황색(금)

원숭이가 그려진 종이는 녹색과 황색의 총 두 가지 색상이지만 단계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석록과 석황의 혼합색인 녹색을 먼저 칠하는데 산을 칠할 때와 마찬가지로 녹색을 한 번에 진하게 칠하지 않고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어 칠하였다.(그림 90,91,92) 다음 황색인 금으로 잔의 테두리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색인 금으로 원숭이의 동물을 그렸다.(그림 93)

호랑이가 그려진 종이를 그리는 색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① 녹색(석록+석황) → ② 황색(금) → ③ 적색(주사) → ④ 백색(은) → ⑤ 황색(금)

녹색은 원숭이가 그려진 종이와 동일하며(그림 94,95), 황색인 금으로 잔의 테두리를 그린 다음 적색인 주사로 호랑이의 몸통을 그리고 백색인 은으로 호랑이의 무늬를 그리며 마지막으로 황색인 금으로 호랑이의 눈을 그려 마무리한다.(그림 9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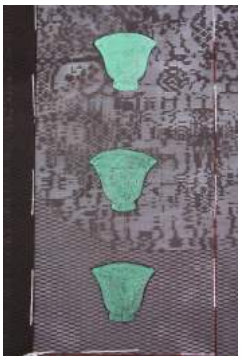


그림 90. 녹색 1차 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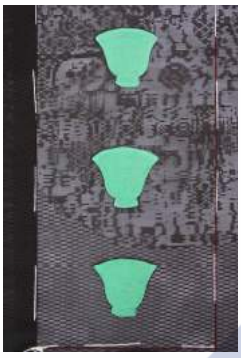


그림 91. 녹색 2차 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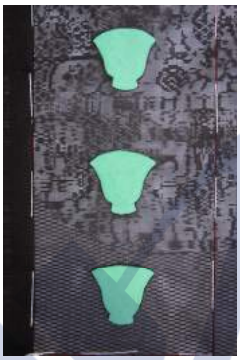


그림 92. 녹색 3차 채색

그림 93. 황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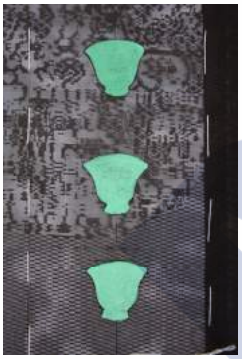


그림 94. 녹색1차 채색

그림 95. 녹색 3차 채색

그림 96. 황색, 적색, 백색 채색

그림 97. 완성된 호랑이 종이

그림 98. 왼쪽 소매 종이

그림 99. 오른쪽 소매 종이

그림 100. 완성된 왼쪽 소매 장문

그림 101. 완성된 오른쪽 소매 장문

소매 끝에 있는 장문인 화, 화충, 종이를 다 그리고서 잘 건조시킨 후 밑그림을 분리하여 완성하였다.(그림 98,99)

이상으로 갑사 구장복 현의에 그려진 5장문인 용, 산, 화, 화충, 종이를 각각 유물 조사, 밑그림 제작, 문양 모사 과정의 순서대로 복원 모사하여 완성하였다.(그림 100,101,102,103)

그림 102. 현의 5장문이 완성된 갑사 구장복의 앞면

그림 103. 현의 5장문이 완성된 갑사 구장복의 뒷면

Ⅳ. 중단의 불문 복원모사

중단에 그려진 불문을 복원모사하기 위하여 유물 조사, 밑그림 제작, 문양 모사의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유물 조사

불문(黻紋)은 '아(亞)'자 혹은 '궁(弓)', '기(己)', '이(已)'자가 서로 등을 대고 있는 모양으로 묘사된다. 이 불문은 어떤 사물을 형상화한 것이 아니라 관념에 의한 창작물이다. 불문은 군신간의 이합(離合)을 상징하는데, 같은 글자가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형상을 통해 군주와 신하가 때로는 거리를 두기도 때로는 뜻을 합쳐야 함을 상징한다.[55] 또한 신하와 백성이 악(惡)에 등을 돌리고 선(善)으로 나아가야 함을 상징한다.[56]

갑사 구장복 불문은 중단의 흑색 깃 위에 '아(亞)'자 형으로 11개[57]가 있다. 불문 한 개의 크기는 6.8×6cm이며, 불문 테두리의 두께는 2mm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안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테두리는 금(Au)을 내부는 황동(Cu+Zn)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8)

표 8. 갑사 구장복 불문에 사용된 안료 분석 결과

장문	색명	주성분	추정안료	사용안료	위치
불문	황색	Au	금	금분	불문 테두리
		Cu, Zn	황동	황동분	불문 내부

앞서 진행된 은조사 구장복의 불문과 동일하기에 같은 방법으로 재현하기로 방향을 설정하였는데 실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조사 구장복(그림 104) 복원모사시 유물에 있는 불문의 형태와 느낌을 재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실험하였다. 첫째, 불문 전체를 황동분으로 옷감에 그리는 방법을 행하였다.(그림 105) 둘째, 불문의 판을 만들어 구멍이 뚫린 면을 통하여 황동분을 밀어내어 밑에 있는 옷감에 찍어내는 방법을 행하였다. 먼저 구멍의 판을 종이로 제작하여 황동분을 밀어내었더니 수분으로 인한 종이판의 변화가 와서 적합하지 않았다.(그림 106,109) 셋째,

55 최연우(2015). 앞책. pp.113~115.
56 앞책. pp.113~115.
57 국립고궁박물관(2013). 왕실문화도감. 서울:국립고궁박물관. p.33.
불문의 개수는 황제가 12개, 황태자와 왕이 11개, 왕세자가 9개, 왕세손이 7개이다.

그림 104. 은조사 불문 원본

그림 105. 그리기

그림 106. 종이판

그림 107. 아세테이트지판

그림 108. 고무판 도장

그림 109. 종이

그림 110. 아세테이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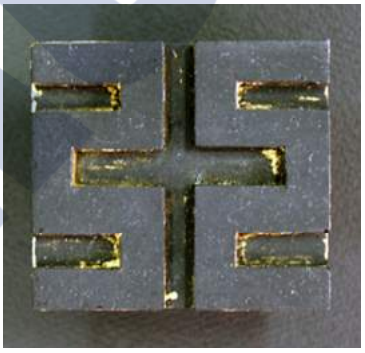


그림 111. 고무판으로 만든 도장

투명한 아세테이트지 재료로 다시 판을 제작하여 실험하였다.(그림 107,110) 넷째, 고무판으로 불문의 양각 도장을 만들어 황동분을 칠해 옷감에 찍어내는 방법을 행하였다.(그림 108,111) 그리고 공통적으로 금분으로 테두리를 그리는 실험을 하였다. 실험결과 은조사 구장복 원본의 느낌과 가장 비슷하게 표현되는 방법이 네번째의 불문 모양 도장으로 찍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은조사 구장복 불문 재현 실험을 바탕으로 하여 갑사 구장복의 불문 치수를 측정하여 고무판으로 불문의 양각 도장을 만들고 다음으로 그 도장에 황동분을 붓으로 칠해서 옷감에 찍어낸 다음 마지막에 금분으로 테두리를 그리는 방법으로 모사 방법을 설정하였다. 물론 갑사 구장복은 원형 복원모사이기에 유물보다는 안료를 많이 표현하고자 하였다.

(2) 밑그림 제작

불문의 밑그림 제작 과정은 유물의 치수를 재서 밑그림을 그리는 것과 고무판으로 양각 도장을 만드는 과정, 마지막으로 밑그림을 옷감에 고정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밑그림 그리기는 유물에서 정확한 치수를 확인하고(그림 112) 실사 사진 위에 투명 아세

그림 112. 유물의 치수 확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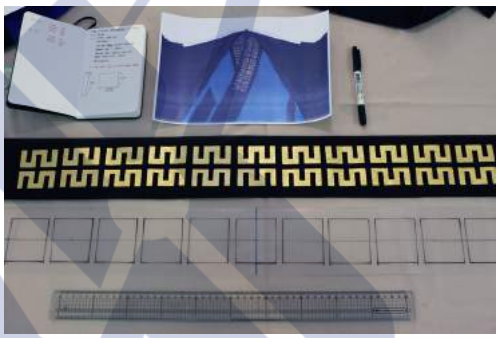


그림 113. 아세테이트지에 위치 옮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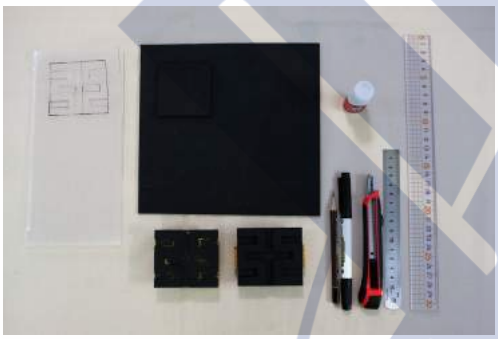


그림 114. 고무판으로 양각 도장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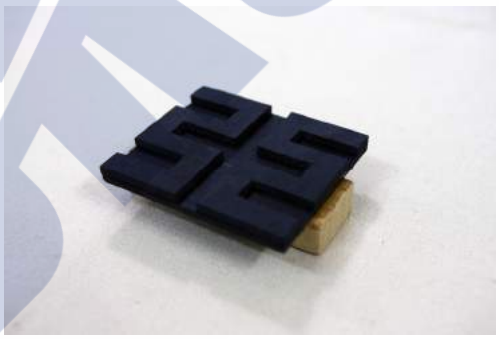


그림 115. 제작 완료된 불문 양각 도장

그림 116. 은조사 도장과 갑사 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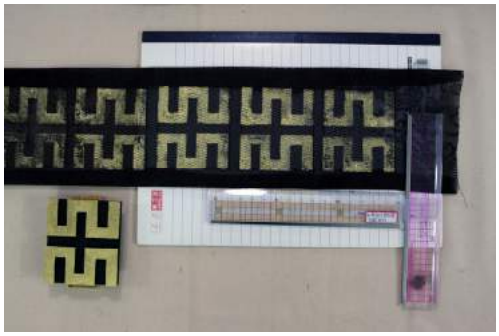


그림 117. 도장 찍어보기

테이트지를 사용하여 가는 유성펜으로 불문의 위치를 그대로 옮겼다.(그림 113) 아세테이트지에 옮긴 불문을 다시 고무판에 옮긴 후 양각 도장을 제작하였다.(그림 114,115) 앞서 제작한 은조사 구장복의 불문과 비교했을 때 갑사 구장복의 불문 두께와 간격이 보다 일정하였다.(그림 116) 새로 만들어진 도장을 옷감에 찍어보는 실험을 하였으며(그림 117), 준비된 밑그림을 옷감의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였다.

(3) 문양 모사

불문의 문양 모사 과정은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뉜다. 먼저 황동분으로 불문을 찍어내는 과정과 건조 후 금분으로 불문의 테두리를 그리는 과정이다.

황동분으로 불문을 찍어내는 과정은 황동분의 재료를 준비하여(그림 118) 고무판으로 만든 불문 도장을 이용하여 옷감에 고정시킨 밑그림의 위치를 따라서 11개를 찍어내었다.(그림 119) 황동분으로 찍어낸 불문을 잘 건조시켰다.

그림 118. 황동분 재료 준비하기

그림 119. 황동분의 불문 찍어내기

금분으로 불문의 테두리를 그리는 과정은 99% 순금의 금분과 아교를 준비한다.(그림 120) 금분을 사용하는 방법은 접시에 금분을 덜어 금분에 아교를 잘 섞은 다음(그림 121,122) 열을 가해 수분을 증발 시킨 후(그림 123) 다시 아교와 물을 넣어 잘 섞어주었다.(그림 124,125) 금분을 아교에 개어 열에 건조시켜 풀어서 사용하는 것은 박락을 방지할 수 있으며 좋은 발색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58] 준비된 금분으로 불문의 테두리를 따라 그리고(그림 126,127) 잘 건조시켰다. 마지막으로 밑그림을 분리하여(그림 128) 중단의 불문을 완성하였다.(그림 129,130)

58 이상현(2010). 앞책 pp.86~88.

그림 120. 금분 재료 준비하기

그림 121. 금분 덜어내기

그림 122. 금분에 아교 섞기

그림 123. 아교를 섞은 금분에 열 가하기

그림 124. 증발시킨 금분에 다시 아교 섞기

그림 125. 증발시킨 금분에 물 섞기

그림 126. 테두리 그릴 금분 준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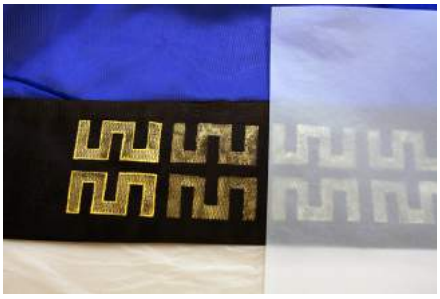


그림 127. 금분으로 불문에 테두리 그리기

그림 128. 밑그림인 아세테이트지 분리하기

그림 129. 중단 불문 완성하기

그림 130. 중단 불문이 복원모사된 갑사 구장복

Ⅴ. 맺음말

본고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구장복(신수6328, 중요민속문화재 제66호) 중 갑사 구장복의 장문을 복원모사하기 위하여 먼저 갑사 구장복 장문에 사용된 채색안료를 조사하고 장문을 현의에 그려진 5장문과 중단에 그려진 불문으로 나누어 유물을 조사하고 사용된 재료와 제작 과정과 제작 기법 등을 서술하였다.

구장복의 장문을 복원모사한 방향은 첫째, 장문의 정확한 형태를 고증하여 복원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과제로 삼았다. 현재 구장복의 장문이 온전한 형태로 존재하거나 밑그림인 본(本)이 존재한다면 작업이 수월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에 완전한 문양의 밑그림

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밑그림은 원본의 크기와 형태에 충실하되 심하게 박락된 부분은 온전한 부분의 형태를 기준으로 삼아 원형을 복원 모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특히 이번 갑사 구장복 장문의 복원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X선 촬영 조사 결과로 현재 안료가 박락되고 변색되어 육안으로는 잘 안보이던 은으로 그려졌던 부분의 모습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문양의 형태 고증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의복의 특징상 좌우대칭이 기본이기에 이 점도 감안하여 밑그림을 제작하였다. 둘째, 장문의 정확한 색채 재현이 중요한 과제였다. 현존하는 구장복의 상태를 바탕으로 하되 안료의 박락이나 손상된 부분을 과학적, 미술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색채를 추정하여 충실히 모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국립중앙박물관의 X선 형광분석에 의한 안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색과 재료를 고증하고 현존하는 가장 가까운 안료를 구하고자 하였다. 그 재료로 여러 차례 기법 실험을 한 후 적합한 재료와 방법으로 장문 복원모사를 실시하였다.

갑사 구장복에는 5종의 장문과 1종의 불문 총 6종의 문양이 쓰였는데, 5장문은 용, 산, 화, 화충, 종이의 문양이다. 갑사 구장복의 장문은 황색, 적색, 녹색, 청색, 백색 등 5색을 기본으로 하여 각 장문마다 색을 조합하여 색상을 사용하였다. 현의의 5장문에는 황색, 적색, 녹색, 청색, 백색의 총 다섯 가지 색상이 쓰였다. 용과 화충은 황·적·녹·청·백의 다섯 가지 색상이 모두 사용되었으며, 종이는 황·적·녹·백의 네 가지, 산은 황·녹·청의 세 가지, 화는 적의 한 가지 색상이 사용되었다. 중단의 불문에는 황색의 한 가지 색상이 사용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X선 형광분석에 의한 안료분석 결과 황색은 금과 황동, 적색은 주사, 녹색은 구리와 비소의 화합물, 청색은 유기안료와 연백의 혼합색, 백색은 은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은조사 구장복과 갑사 구장복에 그려진 5장문과 불문의 안료는 서로 동일하였다. 이번 갑사 구장복의 장문 복원모사시 실제 사용된 안료는 황색은 금분과 황동분, 적색은 주사, 녹색은 석록과 석황의 혼합색, 청색은 쪽과 연백의 혼합색, 백색은 은분이다. 특히 은의 경우 은조사 구장복과 갑사 구장복 모두 안료의 심한 박락과 흑변으로 인해 거의 알아보기 힘든 정도이나 이번 국립중앙박물관의 갑사구장복 X선 촬영 조사 결과에서 은의 사용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으며, 본인은 그 색을 원형대로 복원하였다. 결국 장문은 황색과 백색이 각각 금과 은의 금속성 안료로 그려져 전체적으로 매우 화려하고 정교하게 표현되었으며 그 가치 또한 높아졌다. 특히 용의 경우 은조사 구장복 복원시에는 황·적·녹의 세 가지 색상만 밝혀져 세 가지 색상으로 그려졌으나, 이번 갑사 구장복 복원시에는 청색의 사용과 용의 동공에 연백을 칠한 뒤 금을 덧칠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져 이를 용의 장문 모사에 모두 적용하였다. 중단에 그려져 있는 불문의 경우 색상은 황색 한 가지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의 X선 형광분석에 의한 안료 분석 결과 금과 함께 황동이 쓰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실제 황동분과 금분을 사용하여 복원모사하였다. 장문의 복원모사 과정은 크게 유물 조사, 밑그림 제

작, 문양 모사 과정의 세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복원모사에 쓰인 재료와 제작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였다.

갑사 구장복의 장문 복원모사 연구는 유물의 과학적 조사와 실질적 기법 연구를 바탕으로 장문의 원형을 추정하여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자 이루어졌다. 이번 갑사 구장복의 장문 복원 모사 연구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내용이나 잘못 판단한 내용은 다음 연구의 선결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단행본 |

국립고궁박물관(2013a). 궁에서 왕을 만나다. 서울:국립고궁박물관.

_____(2013b). 왕실문화도감 조선왕실복식. 서울:국립고궁박물관.

_____(2014). 궁중문양판. 서울:국립고궁박물관.

_____(2015). 조선왕실의 어진과 진전. 서울: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2009). 우리나라 전통무늬 직물. 서울:눌와.

국립중앙박물관(2007). 조선시대 초상화 초본. 서울:국립중앙박물관.

_____(2011). 145년 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 서울:국립중앙박물관.

_____(2013). 박물관 보존과학 이야기. 서울:국립중앙박물관.

_____(2016). 보존과학. 서울:국립중앙박물관.

난사 전통복식문화재연구소,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16). 어진에 옷을 입히다. 서울:민속원.

서울역사박물관(2015). 조선시대 기록화 채색안료. 서울:서울역사박물관.

이민주(2013). 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 경기:한국학중앙연구원.

이상현(2010). 전통회화의 색. 서울:결.

임영주(2007). 한국의 전통문양. 서울:대원사.

정종미(2001). 우리 그림의 색과 칠. 서울:학고재.

최연우(2015). 면복. 서울:문학동네.

| 논문 |

강규성(2011). 녹색 무기안료의 재현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정한(1999). 전통회화에 사용된 천연재료연구-견, 아교, 백반 및 천연안료에 관하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승원(2013). 조선시대 복식유물의 복원과 복제. 동원학술논문집 4.

서수영(2011). 한국회화에서의 금(금) 표현기법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현옥(2007). 조선시대 채색재료에 관한 연구-의궤에 기록된 회화의 채색재료를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은영, 강형태(201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적의본과 폐슬본 채색 안료 및 염료 분석. 박물관보존과학 제13집.

_____(2014). 은조사 구장복의 채색안료 분석. 박물관보존과학 제15집.

장은지(2005). 회화에 사용된 백색안료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차혜정(1997). 용그림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윤정(2005). 복식에 활용된 금(Gold)의 미적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우영(2009). 인공합성 안료 에메랄드 그린의 한국화 사용에 대하여. 제 1회 (사)한국장황연구회 춘계학술대회. (사)한국장황연구회.

A Study to Restore and Replicate the Symbol of the King in Gapsa Gujangbok

Park, Seo-Rim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Art Conservation Center

Abstract

To restore and replicate the symbol of the king in the Gapsa(fine silk) Gujangbok (King's Ceremonial Robe with Nine Symbols)(important folklore cultural property no. 66) possessed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loring pigments of the relic and considered the fabricating technique and process for the symbol. The restored and replicated the symbol of the king in the Gapsa Gujangbok is a dragon, mountain, flame, pheasant, vessel and Bul(黻) pattern. The restoration and replication of the symbols was conducted regarding the historical research into the accurate forms of the symbols and the reproduction of the colors as important tasks and ascertained the historical truths of the forms, colors, and materials based on the results of scientific analyses conducted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colors of symbols of the Gapsa Gujangbok were made by combining five basic colors; yellow, red, green, blue, and white for individual symbols. Through analyses of the pigments, the yellow pigment was assumed to be gold and brass, the red pigment was assumed to be cinnabar, the green pigment was assumed to be a compound of copper and arsenic, the blue pigment was assumed to be a mixture of organic pigment and white lead, and the white pigment was assumed to be silver. The pigments actually used in the restoration and replication of the symbols of Gapsa Gujangbok were gold and brass powders for yellow, cinnabar for red, a mixture of malachite green, and opiment for green, a mixture of indigo and white lead, and silver powder for white. For the restoration and replication of the symbols, the symbols were largely divided into two groups; one group consisting of the five symbols drawn on the robe and the Bul(黻) pattern on the front cloth panel and the restoration and replication progressed through

three processes; relic investigation, underdrawing production, and design replication. Attempts were made to leave the materials used in the restoration and replication and the production processes as records. The study for the restoration and replication of the symbols of Gapsa Gujangbok was conducted to estimate the original forms of the symbols based on scientific investigations of the relic and studies of actual techniques with a view to restoring the original forms.

Keywords : Gapsa Gujangbok(King's Ceremonial Robe with Nine Symbols), five symbols of the king, Bul(黻) pattern, coloring pigment, restoration and replication

임오년(1882)가례 『왕세자 가례도감의궤』와 「궁중볼긔」 복식연구

안애영*

논문요약

본고는 조선왕실의 가례 가운데 고종 19년 임오년(1882) 왕세자 가례시 복식을 『왕세자가례도감의궤』[1]와 임오년 「궁중볼긔」[2]를 중심으로 비교 고찰한 것이다. 임오년 가례는 순종황제(1874-1926; 재위 1907-1910)가 왕세자로 있을 당시 충문공 민태호(閔台鎬)의 딸 민씨(1872-1904; 순명효황후)와의 국혼을 말하며 세자의 모후인 명성왕후가 생존시에 치루어진 대혼이었다. 동일한 국혼에 대한 기록이지만 상기 문헌의 가례복식 내용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현존하는 역대 『가례도감의궤』는 총 20건의 국혼기록으로 1627년 소현세자 가례부터 1906년 순종의 황태자 시절 가례까지 280년간 기록이다. 가례시의 복식 내용은 의궤 특성상 전례서(前例書)와 같은 기능을 지니고 있어 시류에 따르는 복식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임오년 왕세자의 가례복식은 면복 일습, 곤룡포 1, 더그레[加文剌] 1, 철릭 1, 액주름 2. 과두 1, 삼아 2, 바지 2점 등으로 면복을 제외하고 10점 뿐이며 이는 소현세자 가례시 복식과 동일한 내용이다. 왕세자빈 가례복식은 적의 일습 외에 노의·장삼·원삼·겹오·중삼 각 1점과 고의 2, 저고리 3, 호수 1, 치마 3, 활한삼 1, 삼아 1, 속옷 1, 세수장삼 1점 등 18점이다. 반면 임오년 「궁중볼긔」 가운데 가례시 왕세자 복식은 면복과 곤룡포 일습을 제외하고 철릭 4, 도포 2, 창의 4, 중치막 2, 쾌자 군복 5작, 동다리군복 4, 쾌자·주의 4작, 쾌자·장의대 2작 동의대 11, 봉지 15 점 등으로 64점에 이르며 당시 사대부들도 착용하였던 다양한 평상의대가 확인된다. 왕세자빈 가례 복식은 적의·홍장삼·원삼·당고의 등 예복 일습 외에도 당고의 5, 견마기 2, 소고의 98, 대란치마와 스란치마를 포함한 치마류 93점, 속옷류 61점 등으로 모두 259점으로 의궤 기록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가례도감의궤』 복식 기록은 국장시에 생전시 복식을 반영한 염습의대 기록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왕실의 기록이라도 전례서의 기능을 하는 『가례도감의궤』의 복식 기록은 여타의 왕실 기록과 비교 고찰이 필요하며, 발기에서의 평상의대는 출토복식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계속적인 비교 연구에 본고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1차적인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 가례도감의궤, 궁중볼긔, 가례, 법복, 의대

* Corresponding author : An, Ae-yeong, E-mail : sunrise-05@hanmail.net
| 투고일 | 2017.11.15 | 심사개시일 | 2017.11.23 | 심사완료일 | 2017.12.05 | 게재확정일 | 2017.12.09

1 『왕세자가례도감의궤』(1882) 규13174 오대산성본 규장각한국한연구소 서울대학교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4). 『고문서집성』 十二 장서각편 Ⅲ

Ⅰ. 머리말

유교국가를 지향한 조선은 국초부터 다양한 예서들을 편찬하여 국가 의례를 시행함에 있어 지침서로 삼았다. 그 중에는 왕실 복식과 관련한 예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국혼과 국장에 관련한 예서들은 왕실 복식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승정원일기』, 『의궤』 등 왕실행사에 관한 많은 기록 가운데 『의궤』는 유교적 이념을 실현하는 예의 수행과정을 의식의 준비에서 과정까지 모두 기록하고, 중요한 부분은 그림으로도 남겼다. 그 가운데 『가례도감의궤』는 왕실 혼례의 전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인조 5년(1627) 소현세자 가례부터 고종 10년(1906) 순종의 두 번째 가례인 병오년(1906) 황태자 가례까지 왕의 가례, 왕세자 가례, 왕세손 가례, 황태자 가례 등의 기록이 있다.

역대 『가례도감의궤』의 가례복식 기록은 영조 25년(1749) 『국혼정례』[3]의 편찬을 계기로 전·후반기로 양분되는 구조적인 특징을 보인다. 『국혼정례』 제정 이전에는 왕·왕세자와 왕비·왕세자빈의 복식을 의대로 기록하였으나, 제정 이후부터는 면복과 적의 등 대례복을 법복으로, 그 외 복식을 의대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의대는 약 3세기에 걸친 가례 복식류가 변화 없이 동일한 종류의 복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신분에 따라 의색, 소재, 소요량, 재봉실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채색 반차도까지 갖추고 있어 복식 연구에 매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의궤』는 후대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의 주요한 행사가 있으면 선왕 때의 사례를 참고하여 거행하는 것이 관례였다.[4] 그러나 전례를 참고한 기록인 『가례도감의궤』의 복식기록은 동시대의 국장 관련 의궤나 또 다른 궁중생활 기록인 「궁중발긔」를 비롯하여 전세되고 있는 왕실복식 유물과 비교, 검토해 보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궁중발긔」는 왕실에서 관례, 가례, 명절, 탄일 등 특별한 때에 실무를 담당한 궁녀들에 의해 기록된 물품 목록 문서이다. 「궁중발긔」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인 임오년 순종의 왕세자 가례와 관련된 내용은 가례 일년전인 신사년부터 준비한 도침발기, 속옷발기부터 간택시 발기, 관례시 발기, 두 분 마마 의대발기(법복포함), 직조발기, 흉배발기, 패물발기가 당시 복식을 포함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동일한 행사의 의궤와 발기기록에서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순종

3 『국혼정례』는 『탁지정례』 편찬 이후 나라의 혼례절차가 사치에 흐르고 비용 낭비가 극심한 당시의 풍습을 우려한 영조의 지시로 영조 25년(1749)에 왕명을 받아 박문수 등이 국혼에 관한 정식을 적은 책이다.

4 김문식·신병주(2005). 조선 왕실기록문화의 꽃 의궤. 파주:돌베개, p8.

(1874-1926)의 왕세자 시절 혼례인 임오년 가례를 택하였다. 당시의 행사 기록인 『왕세자 가례도감의궤』와 「궁중볼긔」의 왕세자·왕세자빈 복식 기록을 비교하여 두 문헌에서 특징을 연구하고자 한다.

1. 임오년(1882) 왕세자 가례

임오년 가례는 조선조 마지막 왕세자로 명성왕후 민씨의 소생인 순종의 첫 번째 가례로 고종 19년(임오, 1882) 2월에 있었다. 순종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아들로 익종 이후 첫 정식 왕비의 소생인 원자였다. 9세에 어머니인 명성황후와 친척이 되는 민태호의 딸 민씨와 가례를 올렸는데 이것이 임오년 왕세자 가례이다. 이 가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12만냥을 준비하게 하였다는 고종실록[5] 기록과 함께 고종은 신사년(1881)에 가례에 필요한 혼수직물을 동경직물회사에 주문하였던 기록이 있다고 한다.[6] 이 국혼에 관한 내용은 임오년 『왕세자가례도감의궤』와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궁중볼긔」에 기록되어 있다.

임오년 가례는 고종 18년(1881, 신사) 11월부터 왕세자의 관례와 가례에 관한 논의 후 금혼령이 내려졌으며 다음 해(1882, 임오)인 정월 20일에 왕세자의 관례가 있었다. 가례는 정월 15일에서 26일까지 삼간택 후 2월부터 육례가 이루어졌다.

표 1. 임오년 왕세자 국혼 일정

일정	일시
금혼령	1881.11.15.
초간택	1882. 1.15.
재간택	1882. 1.18.
삼간택	1882. 1.26.
납채례	1882. 2. 3. 손시
납징례	1882. 2. 7. 오시
고기례	1882. 2. 9. 손시
책빈례	1882. 2.19. 오시
초계례	1882. 2.21. 손시 오시
친영례	
동뢰연	
조견례	1882. 2.22.
작헌례	1882. 3.11.

출처 : 조선왕실의 여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p.53

그림 1. 임오가례택일기

5 『고종실록』 권 18, 고종 18년(1881) 12월

6 박성실(2011), 대한제국황실의 적의제도(1), 고궁문화 No.4, 국립고궁박물관, p.27.

육례의식의 진행은 『조선왕조실록』, 『가례도감의궤』, 『등록』 뿐 아니라 「궁중발긔」 임오가례택일기[7]에서도 확인된다.(그림 1)

2. 임오년 『왕세자가례도감의궤』의 가례 복식

조선조의 국가 주요 의례들은 국초부터 오례의 범주로 체계화되었고, 그 실행에 있어 왕실과 행사의 권위를 높이면서, 예제(禮制)의 원칙과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했다. 이를 위해 오례(五禮)의 기본예식인 국가 의례 및 왕실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궤』[8]로 작성하였다. 『가례도감의궤』는 가례행사의 계획과 준비 및 진행과정을 실제 수행한 사실로 기록하였으며, 실제 소요물품은 상의원에서 왕명을 받아 왕실제반 소요품에 관한 규례로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가례도감의궤』는 매 가례마다 만든 가례 관련 문헌들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종실록』[9]에 예조가 예전인 『국조오례의』보다 전례(前例)인 의궤를 우선 활용하였다고 전하는데 이는 『가례도감의궤』가 행사에 관련된 모든 시행절목과 세부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고, 반차도와 채색 도설 등 시각적인 자료도 첨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례도감의궤』에서 가례예복은 전교(傳敎), 예관(禮關), 일방의궤(一房儀軌) 부의주(附儀註)에서 의례와 참예자의 신분에 따른 복식을 제시하고 있다. 『가례도감의궤』와 『국조오례의』에는 의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례자인 왕세자와 왕세자빈이 법복과 의대를 갖춘다고 하였다.

(1) 왕세자 복식

현존하는 왕세자의 가례는 9건으로 『국혼정례』 제정 이전 의궤는 소현세자(1627년), 현종(1651년), 숙종(1671년), 경종(1696,1718년), 진종(1727년), 장조(1744년) 등 7건이며, 이후 의궤는 문조(익종:1819년), 순종(1882년) 등 2건이다. 역대 왕세자 『가례도감의궤』의 복식기록(표 2)[10]에 의하면 전기 의궤인 숙종(1671년)부터 장조(1744)까지 5건의 가례에는 가문라(加文剌 : 경종 제외), 철릭(天益), 과두(裹肚), 액주름(腋注音), 장삼아(長衫兒), 단삼아(短衫兒), 바지(把持)에 이르기까지 모두 생략되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후기 의궤 2

7 고종 19년에 왕세자[순종]의 가례와 관련하여 육례를 거행할 길일을 받아 작성한 문서이다. 붉은 색 종이에 육례의 날짜와 시각이 차례대로 적혀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005). 조선왕실의 여성. 성남: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p.53.)

8 의궤는 '의식의 궤범'을 뜻함.

9 『명종실록』 권 27, 명종 16년(1561) 2월 병진.

10 안애영(2009). 임오(1882)년 가례 왕세자·왕세자빈 복식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5

표 2. 역대『嘉禮都監儀軌』왕세자 복식

구분	종류	色	1627	1651	1671	1696	1718	1727	1744	1819	1882
			昭顯	顯宗	肅宗	景宗	景宗	眞宗	莊祖	文祖	純宗
法服	冕服	鴉靑	1件	1件	1件	1件	1次★	1件	1件	1件	1件
	赤襪	-	-	-	-	-	-	-	-	○	○
	赤舄	-	-	-	-	-	-	-	-	○	○
	袞龍袍	鴉靑	-	○	團領	團領	○	○	○	○	○
	翼善冠	-	○	翼蟬冠	○	○	○	○	○	○	○
	團領	-	○	-	-	-	-	-	-	-	-
	加文剌	大紅	2	○	-	○	○	-	-	○	○
衣褶	天益	草綠	帖裏2	-	-	-	-	-	-	襦○	○
	裹肚	白	3	3	-	-	-	-	-	襦○	○
	腋注音	紫的	○	-	-	-	-	-	-	白吐紬	○
	綿布腋注音	白	-	-	-	-	-	-	-	○	○
	鼎紬長衫兒	白	○	○	-	-	-	-	-	○	○
	鼎紬短衫兒	白	○	○	-	-	-	-	-	○	○
	吐紬襦把持	白	○	○	-	-	-	-	-	○	○
	鼎紬單把持	白	○	○	-	-	-	-	-	○	○
	馬尾頭冕	-	-	○	-	○	○	-	-	-	○
	馬尾笠	-	○	-	○	-	-	○	○	-	-
	小烏巾	-	○	小烏冠	小烏巾	○	○	○	○	-	-
	網巾(馬尾)	-	2	○	2	2	2	2	網2	○	○
	黑麂子皮靴	-	-	-	靴子3	-	-	-	-	○☆	○☆
	黑斜皮靴	-	-	-	套鞋3	-	-	-	-	○☆	○☆
	黑熊皮鞾鞋	-	-	-	○	-	-	-	-	○	○
	苔	白	2	-	-	-	-	-	-	-	-
	鴉靑(龍具四潭)	-	-	○	-	○	-	-	-	-	-

표에서 '○'은 맨 앞의 기록과 내용이 같음을 뜻하고, '-'은 내용이 없음을 뜻함. 표 안의 기록은 '○'과 다른 내용만 기록된 것임.
★入染次, 畵章次, 綬次, 大帶次, 靑組次, 方心次, 玉圭畵家次, 赤襪次
☆白羊毛精具

건에는 면복 1건·적말·적석, 곤룡포·익선관·가문라(加文剌)[더그레], 유철릭(襦天益), 유과두(襦裹肚), 백토주액주름(白吐紬腋注音), 면포액주름(綿布腋注音), 정주장삼아(鼎紬長衫兒), 정주단삼아(鼎紬短衫兒), 토주유바지(吐紬襦把持), 정주단바지(鼎紬單把持), 망건, 흑궤자피화(黑麂子皮靴), 흑사피화(黑斜皮靴), 흑웅피삽혜(黑熊皮鞾鞋)가 모두 같다.

임오년『왕세자가례도감의궤』에는 '가례도감거행물목별단(嘉禮都監擧行物目別單)'과 '상의원 가례교시시(嘉禮敎示時)'에 왕세자 가례 복식의 명칭과 의차가 법복과 의대로 구

분되어 있다. '가례도감거행물목별단'의 내용은『국혼정례』권 2 왕세자가례 세자궁 법복과 의대와 같고, '상의원 가례교시시' 내용의 의차는『상방정례』권 3 국혼 왕세자궁가례법복과 의대에서 확인된다.

국혼(國婚)에서 왕세자 법복은 면복과 용포이다. 면복 1건의 기록에 적말과 적석이 있으며, '기묘 판부내 아청숙초 백삼차 상차 입지(己卯 判付內 鴉靑熟綃 白衫次 裳次 入之)'라는 부기가 있다. 이것으로 기묘(1819)년 문조의 왕세자 가례 의궤와 같이 면복은 '아청숙초(鴉靑熟綃)'이며 중단은 '백삼(白衫)'임을 알 수 있다. 적말에는 '이상차입(以上次入)'이라 하였고, 적석과 익선관은 '조입차(造入次)'라고 하였다.[11] '아청소운문단룡포(鴉靑小雲紋緞龍袍)'와 '대홍소운문단가문라(大紅小雲紋緞加文剌)'는 '이상자내조비치지(以上自內措備置之)'라 하여 상의원에서 가례를 위해 준비하였다.

의대는 유철릭(襦天益), 유과두(襦裹肚), 액주름(腋注音), 장삼아(長衫兒), 단삼아(短衫兒), 유바지(襦把持), 단바지(單把持)가 각 1차(次)씩이며, 유철릭(襦天益)만 겉은 초록, 안이 번홍(磻紅)색이고, 그 외에는 모두 백색이다. 상의원교시 기록에는 바느질실까지 기록하고 있다.

(2) 왕세자빈 복식

왕세자『가례도감의궤』왕세자빈 복식(표 3)[12]은 왕세자의 복식 기록과 같이 의궤의 '가례도감거행물목별단'과 '상의원 가례교시시(尙衣院 嘉禮敎示時)'에 있으며, 그 내용은『국혼정례』와『상방정례』와 같다.『왕세자가례도감의궤』에서 왕세자빈의 법복은 적의, 별의, 내의, 수, 폐슬, 대대, 하피, 상(전삼후사), 수, 면사, 흉배, 독옥대, 패옥, 청옥규, 흑말, 흑석이 있고, 의대는 노의, 흉배겹장삼, 세수장삼, 원삼, 중삼, 겹오, 고의, 유호수, 솜적고리, 겹적고리, 겹치마, 솜적마, 겹이의, 경의, 활한삼, 삼아 등이 있다.

『왕세자가례도감의궤』의 전교에는 빈궁법복으로 '아청향직적의 1, 대홍향직별의 1, 대홍향직내의 1(辛巳減), 대홍광적폐슬 1, 초록향직대대 1(己卯自鴉靑鄕織翟衣至此五種判付內自內措備置之, 壬午自內措備置之), 금의향직수 1, 모단하피 1, 남향직상 1, 모단수 1(己卯自冒緞霞帔至此三種判付內自內措備置之, 壬午自內措備置之), 자적라면사 1, 모단흑말 1, 독옥대 1, 흑석 1部(除眞珠), 黑柒函 1部(鳥襪入盛)의 기록이 있으며, 상의원 가례교시시에는 기묘년 가례를 전례로 해서 가감하였다고 기록되었다.

---

11 이것은 가례복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 만든 것과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을 들여보낸다는 기록으로 보아 가례복식은 시대성을 가진 복식이라기보다는 예복으로 갖추어진 옷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역대『가례도감의궤』의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임으로도 확인 할 수 있다.

12 안애영(2009). 앞의 글. p.65

표 3. 역대『嘉禮都監儀軌』의 왕세자빈 적의와 부속제구

種類	色	1627	1651	1671	1696	1718	1727	1744	1819	1882
		昭顯	顯宗	肅宗	景宗	景宗	眞宗	莊祖	文祖	純宗
翟衣	鴉青	○★	○	○	○	○	○	○★	○	○
別衣	大紅	-	○	○	○	○	○	○	○	○
內衣	大紅	-	○	-	-	○☆	○	-	○	○
袂大衫	大紅	○	-	-	-	-	-	○	-	-
袂背子	鴉青	-	-	○	-	-	-	○	-	-
霞帔	鴉青	○	○	○	○	○	○	-	○	○
綬	-	-	○	○	○	○☆	○	-	○	○
蔽膝	大紅	-	○	○	○	○☆	○	-	○	○
佩玉	-	○	-	-	-	○☆	○	○	○	○
大帶	草綠	-	○	○	○	○☆	○	-	○	○
靑玉圭	-	-	-	-	-	○	○	-	○	○
禿玉帶	-	-	-	-	-	○	○	-	○	○
胸背	草綠	2쌍	-	-	-	-	-	○	4쌍	4쌍
繡	-	-	○	○	○	○	○	-	○	○
面紗	紫的	-	-	-	-	-	-	-	○	○
袂裙	鴉靑	○	○	○	○	○	○	○	-	-
裳	藍	-	-	-	-	-	-	-	前三後四	前三後四
黑襪	黑	赤	○	○	○	○☆	○	冒緞	○	○
黑舄	黑	赤	○	-	○	○☆	○	赤	○	○
溫鞋	-	-	○	-	○	○☆	○	2	-	-
鞋	-	-	-	-	-	○☆	○	-	-	-
髻髮	-	○	○	○	○	-	○	○	○	○

★ : 如貫子繡 36片, ☆ : 의차가 다름

왕세자빈의 적의는 조선왕조에서 왕세자의 면복과는 달리 명으로부터 사여된 기록이 없다. 그러나『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인조 23년(1645)[13]에 왕세자빈이 빈궁 책례시에 적의를 입었고, 숙종 22년(1696)에도 종묘에 행례하는 의식에 왕세자빈이 수식을 하고 적의를 입었다고 하였다. 또한 역대 왕세자『가례도감의궤』에 왕세자빈의 가례시 법복으로 적의가 있으며,『국조속오례의보서례』에는 왕세자빈의 적의가 의색, 규, 대, 말, 석의 색에서 차이를 보이나 왕비의 적의제와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범례에 의하면 "왕비·빈궁의 옷은 상세히 고찰할 수 없으므로 제도만 기록하고 그림은 붙이지 않는다."[14]고 하였다.

13 『인조실록』 권 46, 인조 23년(1645) 7월 을묘.

14 『국조속오례의보』 범례 "왕비빈궁지복불감고상고지서제이도불도언(王妃嬪宮之服不敢考詳故只書制而度不圖焉)".

『가례도감의궤』에는 왕세자빈의 법복으로 적의, 별의, 내의, 전삼후사의 상과 부속제구로 수, 흉배, 수, 폐슬, 대대, 하피, 면사, 흑말, 독옥대, 패옥, 청옥규, 흑석, 체발의 기록이 있으며, 빈궁의 법복인 적의는 책빈례를 행할 때 명복(命服)으로 받아 갖추어 입는 예복으로 가례마다 제작한 것으로 보이며, 왕세자의 면복과는 달리 매 의궤 마다 같은 의차를 기록하고 있다.

표 4. 역대『嘉禮都監儀軌』왕세자빈 의대

	色	1627	1651	1671	1696	1718	1727	1744	1819	1882
		昭顯	顯宗	肅宗	景宗	景宗	眞宗	莊祖	文祖	純宗
翟衣	鴉靑	○	○	○	○	○	○	○	法服	法服
金圓紋露衣	大紅	露衣袂	○	○	○	○	○	○	露衣	○
露衣帶	紫的	○	○	○	○	○	○	-	○	○
胸背袂長衫	大紅	○	○	○	○	○	○	○	○	○
袂長衫	大紅	-	○	○	○	○	○	-	-	-
圓衫	草綠	○團衫	○	○圓衫	○	○	○	○單衫	○	○
袂襖	大紅	○	○	○	○	○	○	○	○	○
中衫	黃	○	○	○	○	○	○	-	○	○
串衣	紫的	-	-	-	-	○	○	-	○	○
	草綠	-	-	-	-	○	○	-	○	○
胡袖	紫的	○	○	○	○	-	-	4-1	襦	襦
	軟草綠	○	○	○	○	-	-		-	-
赤古里	草綠	鳳花紋	○	○	○	○	○	6-3 ★1	襦紫的	○
	草綠	○	○	○	○	○	○		襦草綠	○
	藍	○	○	○	○	○	○		袂紫的	○
短赤古里	靑	織金	○	○	○	藍金線	-	織金	-	-
濶汗衫	白	2	2	2	2	2	2	3	1	○
衫兒	白	6	3	3	3	3	3	6-3	1	○
袜裙	白	3	白	白	白	白	白	4★2	○	○
赤ㄚ	紫的	膝襴☆	○	○	○	○	○	11-8	-	-
	紫的	☆	○	○	○	○	○		襦赤ㄚ	○
	藍	熟綃	○	○	○	○	○		-	-
	大紅	○	○	○	○	○	○		袂赤ㄚ	○
	藍	吐紬	○	○	○	○	○		襦赤ㄚ	○
裡依	白	單2袂2	單2袂2	單2袂2	單2袂2	單2袂2	單2袂2	單2袂2	袂裏衣1	○
洗手長衫	草綠	-	-	-	-	-	-	-	○	○
景衣	藍	○	○	○	○	-	○	○	○	○
帶	大紅	2	2	2	2	2	2	2	○	○★3
髢髮	-	40丹	68丹	68丹	68丹	68丹	20丹	10丹	10-5	10-5

	色	1627	1651	1671	1696	1718	1727	1744	1819	1882
		昭顯	顯宗	肅宗	景宗	景宗	眞宗	莊祖	文祖	純宗
袂面紗	紫的	★4	★4	★4	★4	★4	★4	★4	○	○
帶腰	紫的	-	○	-	-	-	-	-	○	○
首帊	-	-	-	○★5	-	-	-	-	-	-
首紗只	紫的	2	-	2	-	-	-	-	○	○
靑綃笠	-	★6紫的	-	-	-	-	-	-	-	○
袂汝火	紫的	○	○	○	○	○	○	○	-	袂羅兀
紫的鄕職花溫鞋	-	-	-	-	-	-	-	-	-	○
黑熊皮花溫鞋	-	-	-	-	-	○	○	○	-	○
花溫鞋	紫的	-	-	-	-	○	○	-	-	-

표에서 '○'은 맨 앞의 기록과 내용이 같음을 뜻하고, '-'은 내용이 없음을 뜻함. 표 안의 기록은 '○'과 다른 내용으로 기록된 것임. ☆ : 都監織造, ★1 : 疋緞襦二減一, 紬襦三減二, 綾袂一, ★2 : 襪裙, 減付標. ★3 : 남색 露衣帶가 하나 더 추가됨, ★4 : 織金鴛鴦紋紫的袂面紗, ★5 : 減付標, ★6 : 金都多益眞珠粧笠

왕세자빈의 의대는 [표 4][15]와 같이 노의, 흉배겹장삼, 원삼, 겹오, 중삼, 경의, 고의, 호수, 저고리, 치마, 겹이의, 세수장삼, 활한삼, 삼아 등이며, 역대『가례도감의궤』에서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국혼정례』와『상방정례』제정 이후 왕세자빈의 의대는 왕비와 그 내용이 같으나 가례시 법복 이외의 의대에 대한 용도가 전례서(典禮書)에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3.「궁중불긔」의 임오년 가례「의딕불긔」

장서각에는 조선왕실의 발기(發記, 撥記, 拔記, 件記 등으로 표기)를 950여건을 소장하고 있다. 장서각에 소장된 발기를 연대적으로 보면 순조 19년(1819) 세자가례(효명세자, 추존 익종) 관례 발기부터 경술국치 직후 몇 년까지 약 100년간에 걸친 것들이다.[16] 이 발기류의 대부분이 궁중행사에 대한 것이어서 이를 특별히「궁중불긔」라 칭하고 있는 것이다.

궁중의 행사에 쓰여 진 발기는 상의사(상의원)에서 올리는 별단내용과 달리, 행사를 준비하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궁녀들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이러한「궁중불긔」는「장서각 이왕실 고문서목록」에 의하면 23가지로 구분하였는데, 1. 의대발기, 2. 의복발기, 3. 의대차발기, 4. 의차발기, 5. 금침발기, 6. 주단발기, 7. 도첩발

15 안애영(2009). 앞의 글. p.60

16 김용숙(2005).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5쇄). 서울:일지사. p.376.

기, 8. 도련발기, 9. 보발기, 10십. 예단패물발기, 11. 사찬발기, 12. 진찬발기, 13. 진향발기, 14. 다례발기, 15. 진상발기, 16. 송사물발기, 17. 상격발기, 18. 위축발기, 19. 제수발기, 20. 차비관발기, 21. 문구병풍발기, 22. 기명발기, 23. 기타발기이다.[17]

「궁중볼긔」에 의하면 각 행사에서 웃전에 복식을 올릴 때는 의례복과 함께 평상복이 함께 올려 지며, 동일한 복식으로 추정되는 명칭들이 신분에 따라 다양하게 명명되어지는 특징[18]을 알 수 있다. '의ᄃᆡ(이 후 '의대'라 함)'는 왕과 왕세자, 왕비와 왕세자빈이 착용하는 복식을 통칭하는 것이고, 그 이하의 지위(왕자녀, 후궁, 사대부, 궁녀 등)의 신분에서 착용하는 복식은 의복이라 하여 구별하였다. 이는 『상방정례』와 『국혼정례』에서도 왕과 왕세자, 왕비와 왕세자빈의 복식은 의대라 하였고, 그 이하는 모두 의복으로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서각에 소장된 「궁중볼긔」 가운데 양적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순종의 첫 번째 가례인 임오년 '순종순명후가례' 관련의 발기들이다. 『고문서집성』에 정리된 발기는 이왕직의 목록분류에 의한 것으로 상격분류가 가장 많으나, 복식 관련분류에는 의대발기가 10건, 의복발기 1건, 의차발기 2건, 폐물발기가 4건이 있으며 그 외에 도첩·도련발기가 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의 기록이 한글과 한문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건수가 갖는 의미는 크지 않다.[19] 도첩·도련발기[20]는 신사년으로 기록되어 있어 신사년부터 왕세자 가례를 위해 준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임오년 가례 의대발기는 왕세자(동궁마마)의대 발기 1건과 왕세자빈(빈궁마누라)의대발기인 재간택, 삼간택, 가례시 의대발기가 있다. 그리고 혼수를 미리 준비하면서 기록한 속옷 발기 등과 그 외에 간택 처자를 위한 의복발기와 수방(繡房)발기가 있다.

(1) 왕세자 복식

임오년 가례시 「궁중볼긔」에서 동궁마마 의대발기는 1건으로 「임오이월천만세동궁마마

17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4). 앞의 책. pp.3~4.

18 이명은(2003) 궁중볼긔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0
– 남자복식의 경우 저고리를 왕과 왕세자는 '동의ᄃᆡ/동의대'라 하였고, 일반왕자는 '동의복/져고리/쟈근져고리'라 하였다. 바지는 왕과 왕세자는 '봉디', 일반왕자는 '바디'라 하였다.

19 발기에는 동일한 내용의 발기가 두건 씩 있는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것은 때로는 발기가 물목의 수령증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정식으로 정서된 발기 외에 초고로 보이는 다른 한 부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 임오가례를 위해 신사년부터 행사준비는 시작되어 발기가 남겨져 있는데 「신ᄉᆞᄉᆞ월쳔만셰동궁마마가례시셰답방도팀볼긔」(도침발기10–1197)에는 ᄂᆡ공ᄎᆞ, 누비ᄎᆞ, 소고의ᄂᆡ공ᄎᆞ, 치마ᄂᆡ공ᄎᆞ, 존누비ᄂᆡ공ᄎᆞ, 반도련, 치마허리ᄎᆞ, 싱풀, 속고의ᄂᆡ공ᄎᆞ, 닌문보ᄎᆞ가 있다. 「신ᄉᆞᄉᆞ월쳔만셰동궁마마가례시도련볼긔」(도련발기3–1202)에는 셰저포, 듕뎌포, 뎌포, 「신ᄉᆞᄉᆞ월쳔만셰동궁마마가례시도팀볼긔」(도침발기8–1195)에는 핫의ᄃᆡᄎᆞ, 누비ᄎᆞ, ᄂᆡ공ᄎᆞ, 임염ᄎᆞ, 갈미ᄎᆞ, 분홍ᄎᆞ, 닌문보ᄎᆞ, 아쳥ᄎᆞ, 쳥뎌포ᄎᆞ, 쳥염ᄎᆞ, 닌보문ᄎᆞ 등이 있어 세답방(세답이란 빨래를 뜻하는데 세탁, 다듬이, 다리미질, 염색가지도 담당한다.(김용숙. 앞의 책. p.19.))에서 준비한 것으로 대부분 속옷류 의차와 겉옷의 내공을 도첩·도련 한 것으로 임오년 가례를 준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5. 임오이월천만세동궁마마가례시의ᄃᆡ볼긔

一作								
表衣				內衣				
名稱	數量	色	衣次	名稱	數量	色	衣次	備考
冕服	2	鴉靑	鱗樸紋紗	靑衫	2	日藍	鱗樸紋紗	
			生水甲紗				生水甲紗	
絳紗袍	2	多紅	鱗樸紋紗	靑衫	2	日藍	鱗樸紋紗	
			生水甲紗				生水甲紗	
龍袍	2	鴉靑	生水甲紗	內作	2	多紅	生水甲紗	
			熟雲紋甲紗				熟雲紋甲紗	

가례시의ᄃᆡ볼긔(壬午二月千萬歲東宮媽媽嘉禮時衣襨件記)」[21]가 있다.

「임오이월천만세동궁마마가례시의ᄃᆡ볼긔」에는 [표 5][22] 법복과 의대를 표의와 내의로 하여 1작씩 기록하고 있다.

동궁마마 가례시 의대발기에는 관례시 의대발기에서와 같이 법복인 면복과 용포가 2건씩 있으며, 강사포도 가례의식에는 소용되지 않으나 2건이 있다. 가례시 법복인 면복은 표의(表衣)가 아청색 사(紗)이며 내의(중단)가 청삼(靑衫)으로 일남(日藍)의 사(紗)이다. 또한, 강사포도 표의는 다홍이나 내의(중단)가 청삼으로 관례시 의대발기와 같이 중단을 청삼으로 하여 병오(1906)년 가례 의대발기에 상감마마와 동궁마마의 면복과 강사포의 중단이 청삼인 것과도 같다. 그러나 이것은『왕세자가례도감의궤』가례복식에서 면복과 강사포의 중단이 '백숙초(白熟綃)'인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용포는 표의가 아청색이며, 내의은 다홍색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용포는 겹옷으로 구성되므로 내작이 의궤에서와 같은 가문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착장시 직령의 다홍색 깃이 단령의 용포 밖으로 보이는 내의로 배색이 같다.

법복 이외의 의대로는 도포·창의 2작, 중치막 2작, 창의 2작, 쾌자·군복 5작, 동다리군복 4작, 쾌자·주의 4작, 쾌자·장의대 2작, 철릭 4건, 동의대(저고리) 11건, 토수 2죽, 봉지(바지) 15건, 행전 14건이 있다. 이들은 관례시 의대발기에서와 같이 서로 일작을 이루어 기록하고 있으며 동의대(저고리)와 파지(把持, 바지)에 토수와 행전까지 일습을 갖추어 기록하고 있다. 이 시대의 기록인 고종 21년 기록[23]에 의하면 도포, 직령, 창의, 중의[중치막]

---

21 의대62-1012(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4). 고문서집성 十二. pp.55~56.)

22 안애영(2009) 앞의 글. p.133.

23 『고종실록』 권 21, 고종 21년(1884) 윤5월 무진.
"의복지제, 유가변자, 유불가변자. 여조제상례지복, 개선성유제, 차시불가변자야; 여사복지수시재의, 무적기편, 차시가변자야. 본국사복, 여도포직령, 창의, 중의중중광수, 불편주선, 구지어고, 역심상원. 자금이후, 초위변통, 지착착수의전복사대, 이추간편, 저위정식. 령해조구절목이입."

를 사복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이 수 많은 의대 가운데 의식용 의대 이외의 의대는 사복으로 이해된다.

임오년 가례시 발기의 의대 기록은 그 수량이 가례시 예복으로 갖추어야 할 의대보다는 평상시 의대로 제작된 것이 많아 가례시 법복의 제작보다는 혼수로 평상시 의대의 제작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2) 왕세자빈 복식

왕세자빈의 임오년 가례 관련 발기는 의대 발기가 「임오쳔만셰동궁마마가례시빈궁마누라의ᄃᆡ침방의문져ᄒᆞ라주오신ᄇᆞᆯ긔」, 「임오쳔만셰가례시빈궁마마의ᄃᆡᄇᆞᆯ긔[침방]」, 「임오쳔만세동궁마마가례시ᄌᆡ간턱후보ᄂᆡ오실빈궁마누라의ᄃᆡᄇᆞᆯ긔」, 「임오쳔만세동궁마마가례시[삼간턱시]빈궁마누라의ᄃᆡᄇᆞᆯ긔」, 「임오쳔만셰동궁마마가례시빈궁마누라의ᄃᆡᄇᆞᆯ긔」등 5건이 있고, 의차발기가 「임오정월가례시간택처자의차(壬午正月嘉禮時揀擇處子衣次)」 1건이 있으며, 수방(繡房)발기로 「임오쳔만세동궁마마가례시용흉배침패물ᄇᆞᆯ긔[수방](壬午千萬歲東宮媽媽嘉禮時龍胸背枕佩物件記[繡房])」가 있다.

가례시 의대발기는 「임오쳔만세동궁마마가례시빈궁마누라의ᄃᆡᄇᆞᆯ긔」[24]와 「임오쳔만세동궁마마가례시빈궁마누라의ᄃᆡᄇᆞᆯ긔」[25]가 같은 내용으로 기록(표 6)[26]되어 있다. 이 발기에는 궁중의 홍장삼 1작[다홍홍장삼, 송화식ᄂᆡ작, 옥식소고의, 송화식소고의, 분홍소고의], 적의 1작[아청젹의, 다홍ᄂᆡ작, 양옥식소고의, 송화식소고의, 분홍소고의]과 그 부속제구[합폐, 폐

표 6. 가례시빈궁마누라의ᄃᆡ발긔(2)

예복		저고리류		치마		속옷	
복식	수량	복식	수량	복식	수량	복식	수량
홍장삼일습(작)	1	당고의일습(작)	5	전향웃치마	3	너른봉디	6
적의일습(작)	1	견마기일습(작)	2	웃치마	12	봉디	8
원삼일습(작)	1	소고의(작)	15	슬란치마	10	단니의	2
당고의일습(작) (직금흉배)	2	분홍소고의	16	대란치마	18	홋단니의	10
		청옥색소고의	3	겹치마(다홍)	10	징 단니의	10
		분홍한삼	13	겹치마(일남)	10	누비봉디	25
				단치마(다홍)	25		
초록야장의	1	송화색소고의	25	단치마(일남)	5		

24 의대39-987.(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4). 고문서집성 十二. pp.33~35.)
25 의대40-988.(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4). 고문서집성 十二. pp.36~41.)
26 안애영(2009). 앞의 글. p.150

슬, 대대, 후슈], 원삼 1작[자뎍원삼, 다홍니작, 송화식소고의, 분홍소고의], 당고의 1작[초록당고의, 다홍니작, 송화식소고의, 분홍소고의], 곁마기 1작[초록견마기, 송화식소고의, 분홍소고의], 소고의 1작[송화식소고의, 분홍소고의] 등 왕실 의례복이 모두 보이며, 그 구성 및 착장법을 알 수 있다.

의대 내용을 용도 별로 정리하면 홍장삼·적의·원삼·당고의 등 예복이 일습으로 6건, 당고의 일작 5건, 견마기 일작 2건 속고의 15작 등 소고의 55점, 한삼 2점, 전향웃치마, 웃치마, 슬란치마, 대란치마, 남치마, 홍치마가 모두 93점, 속옷류가 61점이다. 직금과 부금을 비롯하여 누비(잔누비, 잔주누비, 납작누비, 오목누비), 홋과 단·겹 등으로 그 구성과 바느질이 다양하다.

4. 임오년『왕세자가례도감의궤』와「의딕볼긔」복식 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가례도감의궤』는 가례의 전 과정을 전례서인『국조오례의』와『국조속오례의』(의례의 기본의식),『국조오례의』와『국조속오례의보서례』(왕·왕세자·왕비·왕세자빈의 제복과 예복),『국혼정례』와『상방정례』(가례시 법복과 의대 그리고 의차)에 준하여 왕조례로 기록하였다. 이에 반해「궁중볼긔」는 사관과 달리 복식을 직접 제작한 궁녀들에 의한 실행기록으로 그 시대의 복식 문화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 각기 업무에 충실한 개별기록이기 때문에 법복이나 의대의 일습을 예복으로 갖춘 체계적인 기록은 되지 못한다. 이처럼 동일한 행사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두 문헌에서 보이는 복식기록의 차이는 두 문헌이 가지는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 왕세자 복식

임오년『왕세자가례도감의궤』에는 '가례도감거행물목별단'과 '상의원교시시'에 왕세자 가례복식을 제시하고 있고,「궁중볼긔」로는「임오정월쳔만세동궁마마관례의딕볼긔」와「임오이월쳔만세동궁마마가례시의딕볼긔」에서 왕세자 복식을 기록하고 있다.

① 법복

왕세자 가례에서 왕세자의 가례 법복은 면복, 곤룡포, 가문라이다. 임오년『왕세자가례도감의궤』에서 왕세자의 가례 법복은 '면복 1건'의 기록만 있을 뿐 의차의 기록은 '기묘 판부내 아청숙초 백삼차 상차 입지(己卯 判付內 鴉靑熟綃 白衫次 裳次 入之)'라고만 하여 면복은 아청숙초, 중단은 백삼, 그리고 '상차'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임오년 가례 관련 「궁중발기」에서 왕세자 법복은 면복과 강사포, 용포이며, 각각의 표의와 내의(중단)만 의차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비교에서는 법복의 부속제구를 제외한 면복과 용포의 의차 비교만 가능하다.

『의궤』에서 면복의 의차는 알 수 없지만, 면복은 국혼뿐만 아니라 길례, 가례, 흉례에 이르기까지 국가 대례에 착용되었기 때문에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다.[27] 선조 33년(1603)에 평소에 尙方에는 면복을 만드는 冕服 匠人이 있었고,[28] 선조 39년(1609) 2월 壬子에는 "…冕服則常在尙方矣…"[29]이라 한 것으로 미루어 면복은 상의원에 비치하여 관리하였다. 『상방정례』에서 '면복차 아청숙초 2필, 중단차 백숙초 1필 15척'으로 의차를 확인할 수 있다. 「궁중발기」에서 면복은 관례에 2건과 가례에 2건이 있으며, 아청궁초·아청숙갑사·아청인접문사·아청생수갑사로 아청색의 초나 사를 사용하였다. 중단의 의차는 일남숙갑사·일남이접문사·일남생수갑사로 청삼이며, 이는 『의궤』의 백삼과 차이가 있다. 이는 조선왕실의 유물인 중요민속자료 제 66호 구장복에서 중단이 청삼인 것과 백관의 최고 관복인 조복의 중단이 청삼으로 현존하여 「발기」 기록에 신뢰를 갖게 한다.

『의궤』에서 용포는 '아청소운문필단 1필'이며, 가문라는 '대홍소운문필단 1필'이다. 「발기」에서 용포는 아청운문단·아청생수갑사·아청숙운문갑사이고, 내작은 다홍숙운문갑사·다홍생수갑사이다. 『의궤』와 「발기」의 대홍과 다홍은 표기의 차이로 보인다.

표 7. 왕세자 법복비교

의대	가례도감의궤	궁중발기	
		관례시	가례시
면복	아청숙초	아청궁초, 숙갑사	아청인접문사,생수갑사
중단	백숙초	일남숙갑사	일남인접문사,생수갑사
곤룡포	아청소운문필단	아청운문단	아청생수갑사,숙운문갑사
가문라[내작]	대홍소운문필단	다홍숙운문갑사	다홍생수갑사,숙운문갑사

② 의대

왕세자의 의대는 임오년(1882) 가례 기록인 『왕세자가례도감의궤』와 「궁중발기」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궁중발기」는 『가례도감의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량의 의대가 제작되었고, 평상시 의대까지 포함한 편복류가 제작되어 국혼의 규모를 짐

27 『宣祖實錄』 권 131, 선조 33년(1600) 11월 무신.
"臣意以爲, 誥命冕服, 受之天子, 其在侯度, 誠不可一日而無者。"

28 『宣祖實錄』 권 131, 선조 33년(1600) 11월 경신.

29 『宣祖實錄』 권 196, 선조 39年(1606) 2월 임자.
"品之高下, 何必問焉? 是以, 不敢改之. 冕服則常在尙方矣."

표 8. 왕세자 의대비교

번호	가례도감의궤	궁중발기	
		관례시	가례시
1	유철릭 1차	첩니 4건	첩리 4건
2	유과두 1차	도포·창의 3작	도포·창의 2작
3	액주름 1차	중치막 2건	중치막 2건
4	액주름 1차	창의 2건	창의 2건
5	장삼아 1차	쾌자·군복 9작[한삼구]	쾌자·군복 5작[한삼 구]
6	단삼아 1차	동다리군복 5건	동다리군복 4건
7	유바지 1차	쾌자·주의 7작	쾌자·주의 4작
8	단바지 1차	쾌자·긴의대 2작	쾌자·장의대 2작
9		배자 10건	-
10		동의대 13건	동의대 11건
11		토슈 각색 1죽	토수 각색 2죽
12		봉디 19건	봉지 15건
13		행전 15건	행전 14건

작할 수 있다.

『왕세자가례도감의궤』에는 가례시 법복과 함께 갖추어야 하는 의대로 유철릭, 유과두, 유액주름, 면포액주름, 장삼아, 단삼아, 유바지, 단바지가 각각 1차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역대 왕과 왕세자의 가례에서 법복이 아닌 의대로 기록되어 있으며, 1906년 황태자 가례인 『순종순종비가례도감의궤』에서도 가례복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 의대 가운데 과두는 『조선왕조실록』에는 선조 26(1593)년 이후로 기록이 없으며, 삼아도 성종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다. 액주름은 임란을 계기로 소멸되는 편복포로서 액주름의 포함 여부는 무연고분묘 묘주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가례도감의궤』에 기록된 가문라, 과두, 액주름, 삼아 등은 임란을 전후해서 생존했던 묘주까지의 출토복식에서만 확인된다.

국혼이 더운 하절기는 피한다 하더라도 『의궤』 뿐 아니라 『국혼정례』와 『상방정례』에 유철릭, 유과두, 유액주름, 유바지 등 '유(솜 옷)' 의대가 많아 전례서임에도 불구하고 계절에 대한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임오년 『왕세자가례도감의궤』에 가례복식은 시대적 변화가 적용된 기록보다 전례서에 의한 기록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대의 『가례도감의궤』와 『국장도감의궤』[30]의 복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례도감의궤』의 복식은 국

30 國葬시 殮襲衣褥 기록에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다양한 便服用 衣褥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자료에서 왕의 생전시 御用하던 의대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중에는 사대부가의 출토복식과 동일한 편복포가 포함되어 있다

혼을 위해 준비하는 복식이고 『국장도감의궤』의 복식은 오례의 하나인 흉례에 사용하는 염습의대라는 차이가 있지만 재궁의대는 주로 주인공이 평소에 착용하던 복식이 사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복식의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궁중ᄇᆞᆯ긔」의 관례시와 가례시 의대는 첩리, 도포·창의, 중치막, 창의, 쾌자·군복[한삼구], 동다리군복, 쾌자·주의, 쾌자·장의대, 동의대, 토수, 봉지, 행전이며, 각각 도포와 창의, 군복·주의·장의대에는 쾌자로 1작을 이룬다. 또한 동의대와 봉디, 토슈와 행전까지 기록되어 있어 의대의 착장방법까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철릭, 도포, 중치막, 창의, 동다리군복 등의 다양한 편복포류는 동시대의 왕실관련 문헌과 어진, 전세되고 있는 왕실유품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왕세자빈 복식

임오년 왕세자빈 가례복식은 『왕세자가례도감의궤』에서 '가례도감거행물목별단'과 '상의원교시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된 「궁중ᄇᆞᆯ긔」로는 「간택처자의차」, 「ᄌᆡ간턱후보ᄂᆡ오실의ᄃᆡᄇᆞᆯ기」, 「삼간턱시의ᄃᆡᄇᆞᆯ긔」, 「빈궁마누라의ᄃᆡᄇᆞᆯ긔」, 「빈궁마누라의ᄃᆡ침방의문져ᄒᆞ라주오신ᄇᆞᆯ기」, 「빈궁마마의ᄃᆡᄇᆞᆯ긔[침방]」, 「용흉배침패물ᄇᆞᆯ기[수방]」가 있다.

① 법복

『왕세자가례도감의궤』와 「궁중ᄇᆞᆯ긔」에서 왕세자빈의 가례 법복인 적의를 비교하면 『의궤』에서 적의의 의차는 '아청향직 35척, 내공모단 6척, 적계화성차니금 5전'이며, 「ᄇᆞᆯ긔」에서는 '아쳥금션'과 '적계 오십일조, 아청한단, 소금사칠근[태]'이다. 적계의 문양은 『의궤』에서 니금 5전을 사용하여 그려졌고, 「ᄇᆞᆯ긔」에서는 적계 51조가 아청한단에 금사로 수놓아 붙여졌다. 『국조속오례의보서례』 권 1 왕세자빈 예복제도의 적의는 흑단을 사용하여 앞뒤에 금수사조원룡보(金繡四爪圓龍補)를 붙이고[31], 왕비의 적의와 같은 제식과 수원적을 51개[32]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적의의 구성은 『의궤』와 「ᄇᆞᆯ긔」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국조속오례의보서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ᄇᆞᆯ긔」의 기록이 임오년 왕세자빈의 적의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적의 이외에 별의(내작), 하피(합폐), 폐슬, 대대, 상전삼후사(전향웃치마), 흉배는 『의궤』와 「ᄇᆞᆯ긔」의 비교가 가능하다. 『의궤』에서 별의는 '대홍향직 35척, 내공대홍향직 5척5촌'

31 『국조속오례의보서례』 권지 1, 길례, 왕세자빈예복제도,
"적의, 의이흑단위지의전후첩금수사조원룡보이의제여수원적동왕비복"

32 『국조속오례의보서례』 권지 1, 길례, 왕비예복제도,
"적의, ...기수공오십일."

표 9. 왕세자빈 법복비교

의대	가례도감의궤	궁중발기
적의	아청향직 35척, 내공모단 6척, 적계화성차니금5전	아쳥금션, (적계 : 오십일조, 아청한단, 소금사칠근[태])
별의[내작]	대홍향직 35척, 내공대홍향직 5척5촌	다홍금션
하피[합폐]	모단반폭 10척, 니금 5전	아청공단, 부금
폐슬	대홍화화주 2척, 내공대홍 2척, 오색다회 1부	금의단
대대	초록향직장 5척광4촌, 대홍향직반폭 6척, 청조 1부	의차 기록이 없음
상전삼후사 [전향웃치마]	남, 내공백, 영자대홍	일남
흉배	4쌍	일차, 아청한단(당금사, 가수금사[가첨중금사오태], 대금사

으로 적의의 의차와 같고, 「발긔」에서 내작은 '다홍금션'으로 색상은 같다. 그러나 의차는 향직과 금션단의 차이를 보이며 구성법에서도 『의궤』에 '내공모단'이 「발긔」에는 없다.

그 외 하피(합폐), 폐슬, 대대, 상전삼후사(전향웃치마)는 색에 큰 차이가 없으나 의차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흉배는 『의궤』에는 4쌍 즉 4개를 쌍으로 한다면 앞뒤와 양어깨에 흉배를 부착하게 되나 『국조속오례의보서례』에는 앞뒤에만 흉배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발긔」에는 '흉배 1차'로 수량이 분명하지 않다.

② 의대

왕세자빈의 의대 또한 『왕세자가례도감의궤』와 「의ᄃᆡ발긔」의 내용이 다르다. 「의ᄃᆡ발긔」의 왕세자빈의 의대는 거행하는 의례에 따라 간택, 재간택, 삼간택, 가례시 착용하는 의례복과 방대한 양의 혼수 편복류, 다양한 속옷류가 포함되어 있다.

임오년 『의궤』에서 왕세자빈의 의대는 노의, 노의대, 흉배겹장삼, 세수장삼, 원삼, 중삼, 겹오, 고의, 호수, 적고리(저고리), 유적마(솜치마), 겹적마(겹치마), 경의, 이의, 활한삼, 삼아와 겹면사, 수사지, 대요, 대, 청초립, 겹나울(너울), 화온혜이다. 그러나 「궁중발긔」에서는 노의, 겹오, 중삼, 고의, 호수, 경의 등의 기록이 없으며, 홍장삼·적의·원삼·당고의 일습(직금흉배)과 초록야장의, 당고의 일습·견마기 일습·소고의 등의 저고리류, 전향웃치마·웃치마·슬란치마·대란치마·남치마·홍치마 등 치마류, 너른봉디·봉니·단니의·니의·무족치마·쟈근치마·대자 등 속옷류가 있다.

노의는 『의궤』에 있으나, 「궁중발긔」에는 없고, 장삼은 『의궤』에 흉배겹장삼이 '대홍향직 20척 5촌, 내공 남초 21척'과 '후첩금 1속'이며, 「궁중발긔」에는 '다홍별문갑사슈쳔만셰부

표 10. 임오가례 왕세자빈 의대

번호	가례도감의궤	궁중발기					
		명칭	간택	재간택	삼간택	가례	계
1	露衣1次	홍장삼	-	-	-	1작	1작
2	胸背袂長衫1次	적의	-	-	-	1작	1작
3	圓衫1次	원삼	-	-	(초록) 1작	(자적) 1작	2작
4	袂襖1次	당고의(내작)	-	-	-	2작	2작
5	中衫1次	당고의	-	1작	6작	5작	12작
6	景衣1次	견마기	1작	-	-	2작	3작
7	串衣2次	야장의	-	-	-	1건	1건
8	襦胡袖1次	소고의	2작	(부금) 1작	15작	35작	53작
9	襦赤古里2次	소고의	1작	-	58작	32작	91작
10	袂赤古里1次	한삼	-	2건	1죽	13건	25건
11	袂赤ㅜ1次	전향웃치마(슬란구)	-	-	-	3건	3건
12	襦赤ㅜ1次	웃치마(슬란구)	-	-	1건	3건	4건
13	袂裏衣1次	웃치마	-	-	-	9건	9건
14	洗手長衫1次	남상(슬란구)	-	-	-	10건	10건
15	濶汗衫1次	홍상(슬란구)	-	-	1건	-	1건
16	衫兒1次	남상(대란구)	-	-	-	9건	9건
17		홍상(대란구)	-	-	2건	9건	11건
18		남상	-	-	-	20건	20건
19		홍상	1건	2건	13건	35건	51건
20		너른봉디, 봉디	-	1작	-	6작	7작
21		단니의, 봉디	-	-	-	2작	2작
22		니의[단니의]	-	2건	-	20건	22건
23		봉디	-	-	-	25건	25건
24		쟈근치마	-	1건	-	-	1건
25		무족치마	-	3건	-	-	3건
26		온혜	-	2건	-	-	2건
27		內紬	1疋	-	-	-	1疋
28		細苧布	1疋	-	-	-	1疋

금홍장삼'과 '송화색별문갑사내작'으로 큰 차이가 없다. 원삼은 『의궤』에 '초록화화주 35척, 내공목홍초 20척'이고, 「궁중별긔」에는 '자적슈쳔만셰부금원삼'에 '다홍내작'이며 '아청한단흉배 2차'의 기록이 있어 색상과 구성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별긔」의 부금원삼은 흉배까지 갖추고 있어 의례용의 의미가 크다.

이외에 겹오·고의·호수는 『의궤』에만 기록이 있으나 의차로 미루어 보아 「별긔」의 광고

의·장고의·당고의 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궤』에 유저고리 또한 내공이 대홍숙초와 대홍주이므로 당고의 형태로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출토유물(청연군주 2벌 당의)과 전세유물(영친왕비 당저고리)에서도 확인되며 내작을 두어 2벌을 1작으로 하여 겹쳐 입는 대례복의 구성법과 같은 당고의도 있다.

치마는 『의궤』에 대홍화화주겹치마(大紅禾花紬袂赤ㅇ)와 남화화주·자적토주유적마(藍禾花紬·紫的吐紬襦赤ㅇ) 3건만 있고, 「의딕불긔」에는 전항웃치마, 웃치마[33], 슬란치마, 대란치마 등 다양한 의례용 치마와 남상, 홍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속옷도 『의궤』에는 백수주로 된 겹이의가 1건이 있으나, 「의딕불긔」에는 너른봉디·봉디·단니의·니의·쟈근치마·무족치마·대자 등 다양한 속옷이 포함되어 있다.

「불긔」의 의대는 『의궤』와는 달리 직금과 부금을 비롯하여 누비(잔누비, 잔주누비, 납작누비, 오목누비), 홑과 단·겹 등 구성 방법과 바느질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당고의·견마기·소고의 등 상의의 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 여자복식이 저고리와 치마 중심의 의복구조로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여자복식의 변화는 실록이나 여러 문헌에서 지적하고 있으며, 출토복식과 전세유물, 풍속화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Ⅱ. 결론 -『가례도감의궤』와 「궁중불긔」 복식 기록의 특징과 한계-

본 연구를 통하여 임오년 가례라는 동일한 행사를 다룬 두 문헌의 자료적 성격이 큰 차이를 보이는지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여 『의궤』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밝혔던 두 문헌의 특징을 비교·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가례도감의궤』는 나라의 대사를 거행할 때 선왕조의 동일한 행사 기록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전례서의 기능이 크다.

둘째, 『가례도감의궤』의 복식 내용이 국혼의 가례복식으로 매우 소략하며, 국혼을 위한 의대임에도 계절을 고려하지 않고 솜옷이 주가 되고 있다. 이는 현전하는 『가례도감의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의궤인 소현세자(1627.12)와 인조장열후(1638.12) 『가례도감의궤』 제작 당시 계절과 시대적 상황의 영향으로 보인다.

33 김용숙은 그의 저서(앞의 책. p.400.)에서 "치마는 남과 홍 두 색인데, 「웃치마」란 오히려 먼저 입는 치마고 그냥 「치마」가 위에 입는 겉치마다."라고 하고 있으나 의궤에 반차도나 도설에는 겉치마 위에 웃치마를 입고 있다.

셋째, 『가례도감의궤』에서 반차도는 의례를 행할 때의 기록이 아니라 행사 진행을 위해 가례 이전에 전례에 따라 미리 그려졌으며 또한, 많은 인원의 행렬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각 복식의 정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넷째, 동시대의 『가례도감의궤』와 「염습의대」는 같은 왕실 기록이지만 복식 기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염습의대는 습의 이외에 재궁의대로 평상 의대가 사용한 반면 국혼인 가례는 의례적인 목적으로 법복과 일습을 이루는 의대만 기록하기 때문이다.

표 11. 영조·정조·순조의 염습의대에 보이는 평상 의대류

왕	의대		승하년
영조	상의	중적막, 장의, 답호, 단삼, 협수, 도포, 조복, 공복, 배자, 주의, 창의, 전복, 첩리, 단령	영조 52년 (1776)
	하의	대고, 단고	
정조	상의	답호, 중적막, 장의, 단삼, 창의, 도포, 광수, 배자, 협수, 쾌자, 직령, 이삼, 사규삼	정조 24년 (1800)
	하의	고, 단고	
순조	상의	첩리, 조복, 군복, 쾌자, 도포, 협수, 창의, 장의, 광수, 저고리	순조 34년 (1834)
	하의	고	

표 12. 의인왕후(1600) 인목왕후(1632) 염습의대에 보이는 평상 의대류

왕비	의대		승하년
의인 왕후	포	장삼, 장의, (도포, 첨리)	1600년
	상의	견마기, 저고리, 회장저고리, 적삼, 한삼, 장한삼,	
	하의	치마, 단치마, 겹치마, 소치마, 소겹치마, 유소치마	
	바지	고, 단고, 겹고, 말고	
인목 왕후	포	노의, 장삼, 장의,	1632년
	상의	당의, 소고의, 당고의, 겉막이, 저고리, 회장저고리, 적삼, 한삼, 당한삼, 장고의, 등거리, 속옷, 양단의	
	하의	치마, 단치마, 겹치마, 유치마, 상치마, 납치마	
	바지	단고, 겹고, 말고, 봉지	

다섯째, 「궁중불긔」는 개별명칭에서 행사 내용, 행사 일시, 행사 대상 등을 알 수 있어 특정한 행사에 규모와 특정한 신분의 복식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여섯째, 「궁중불긔」에는 왕실의 가례시 대례복뿐만 아니라 가례를 기해서 평상시 의대인 편복류를 준비하고 있어 복식의 다양성과 그 시대 복식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발기 기록의 신뢰도를 높이며, 특히 왕실복식이 사대부가의 복식과 일치함을 알 수 있어 사대부

가의 전세유물 뿐 아니라 출토복식이 왕실 복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일곱째, 「궁중불긔」는 실행기록으로 물목의 개별 명칭 뿐 아니라 색상, 의차(재료), 구성법과 부금·직금·슬란 등의 장식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표의와 내작(내의)을 1작으로 모아 기록하고 있어 일습으로 갖추어 입는 옷의 착장법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가례도감의궤』의 복식은 동시대의 기록인 「궁중불긔」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80여년을 한결같은 내용으로 기록된 『의궤』의 복식은 시대의 흐름이 반영되지 않은 형식적인 기록임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게 되며, 「의ᄃᆡ불긔」가 시류에 맞는 복식기록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록된 가례가운데 가장 화려한 국혼으로 꼽히고 있는 임오년 가례는 명성왕후의 9살 세자에 대한 극진한 정성이 절정을 이룬 것이 임오년 가례 관련 「의ᄃᆡ불긔」에서 확인된다. 최근에는 『儀軌』의 사료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검증하는 연구가 계속되면서 『宮中件記』에 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 두 문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통복식 연구의 자료로서 올바른 기준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문헌 |

『가례도감의궤』

『국조속오례의보서례』

『국조오례의』

『국혼정례』

『상방정례』

『왕세자가례도감의궤』

『조선왕조실록』

| 단행본 |

김문식. 신병주(2005). 조선왕실의 기록문화의 꽃 의궤. 파주:돌베개

김용숙(2005).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 서울:일지사.

유송옥(1991), 조선왕조 궁중의궤복식, 서울:수학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4). 고문서집성 十二, 十三.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005). 조선왕실의 여성. 성남: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학위논문 |

안애영(2009). 임오(1882)년 가례 왕세자·왕세자빈 복식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명은(2003). 궁중불긔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학술논문 |

박성실(2011). 대한제국황실의 적의제도(1), 고궁문화 No.4. 서울:국립고궁박물관.

A Study on Costume of book 'Ka-rye-do-gam-eui-kuo(嘉禮都監儀軌)' and 'Goong-Joong-Bal-Kee(宮中件記)'

An, Ae-yeong

Abstract

According to ancient books about national wedding ceremonies in Joseon Dynasty such as Gukjo Oryereui, Gukhon Jeongrye, and Sangbang Jeongrye, national wedding ceremonies were recorded in Joseon Wangjo Silrok, Garaedogam Euigue, and Goongjoong Balgui, etc. This study investigates costumes of princes and princesses for ritual ceremony in Joseon Dynasty, especially prince costumes in Imo Year (1882) focusing on Wangseja Garaedogam Euigue and Goongjoong Balgui.

Comparing Wangseja Garaedogam Euigue with Goongjoong Balgui, although they were the records that dealt with same event in the same period,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costumes and that two literatures had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each other.

Records on costumes in Garaedogam Euigue had same characteristics with those in other previous records on ritual ceremonies. They did not reflect trendy changes in costumes, and showed differences in costumes for wearing services to the deceased body in case of national funeral. On the other hand, records of Goongjoong Balgui regarding costumes clearly described whole costumes and status of the wearer on specific events, which are precious literatures for studying royal costumes. Goongjoong Balgui is a record written by court maids who were in charge of practical services, from which we can learn the required item lists, quantity, color, fabrics, and how to wear, etc.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mprehend the whole structure of the system with individual records.

As stated above, clear differences are shown in clothes of ritual ceremony in Imo Year between two records of Wangseja Garaedogam Euigue and Goongjoong Balgui.

This study wants to contribute to continuous comparative studies of two literatures serving as a primary material to support the studies.

Keywords : Garaedogameuigue, Goongjoongbalgi, Garae, Beop-bok, Ui-dae

조선 후기 佛畫 腹藏囊의 현황과 의미

오호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논문요약

복장(腹藏)은 불상이나 불화에 영원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신앙의 대상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종교적 의식행위의 산물이다. 이러한 복장 가운데 복장낭은 괘불을 포함한 족자형 불화의 복장물을 담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다. 조선 후기 복장낭 가운데 편년이 확인되는 유물은 19점으로 주로 경북과 전남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시간적으로는 18세기 전반부터 19세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복장낭의 기능은 불화가 종교적 예배 대상물로서의 상징성과 생명력을 갖게 하는 복장물을 담는 것이다. 복장낭은 외부로 드러나기 때문에 장식성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그 가운데 범자와 진언은 복장낭의 중요한 장식 요소이다. 특히 옴(𑖌𑖼, 唵, Oṃ)자는 불교에서 최고의 진리를 상징하는 상징체로서 복장낭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복장낭의 형태는 옴자가 가지는 종교적, 신비적, 상징적 의미가 투영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발원문을 통해 볼 때, 조선 후기 복장낭은 그 자체로서 불법과 불교의 근본 원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신앙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고 생각된다. 궁극적으로는 복장낭은 깨달음과 성불의 길을 안내하는 복합적인 의미와 상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불도로서 예배 대상에 대한 장엄과 공양을 통한 실천행의 결과라고 하겠다.

주제어 : 불화(佛畫), 복장낭(腹藏囊), 범자(梵字), 옴(𑖌𑖼, 唵, Oṃ)

* Corresponding author : Oh, Ho-seok, E-mail : dotory95@dankook.ac.kr
| 투고일 | 2017.11.18 | 심사개시일 | 2017.11.20 | 심사완료일 | 2017.12.05 | 게재확정일 | 2017.12.07

Ⅰ. 머리말

복장(腹藏)은 불교에서 예배 대상물을 제작한 후 여러 가지 불교적 의미의 신앙물들을 불상 내부나 불화의 복장낭(腹藏囊) 속에 넣음으로써 불교미술품을 신앙의 대상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1] 불상이나 불화는 복장을 통해 그 자체의 영원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2] 그동안 불복장(佛腹藏)에 대한 연구는 미술사, 서지학, 복식사의 각 분야에서 폭넓게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복장이 지닌 종교적 의미와 기능에 대한 고찰은 물론 불복장의 특징과 변천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복장낭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편으로 대부분 발원문과 후령통 등 복장낭 안의 내용물에 관심이 집중되었다.[3]

복장낭은 불화, 특히 괘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족자형 불화의 복장물을 담기위한 용도로 제작되었다. 족자형 불화는 복장을 넣을 여유 공간이 없으므로 메다는 형태의 복장낭이 사용되었다.[4] 즉 배접과 족자라는 불화 장황(裝潢)에서 기인하는 불화의 공간적 제약성으로 인해 회화적 기법으로 제작된 불화에 생명력과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의 고안을 통해 복장낭이 출현하게 된 것이 아닌가하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장낭이 언제부터 출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그림과 기록을 통해 적어도 조선전기 불화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5] 복장낭은 주로 비단을 주재료로 제작하였으며, 종이·금속(청동)의 재료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복장낭의 형태는 가운데에 고깔 형태를 중심으로 양쪽에 귀나 뿔이 달린 모습을 한 뚜껑과 발(鉢) 형태의 주머니 부분 그리고 상단의 고리와 하단의 장식을 갖춘 모습으로 알려져 있으며 색상은 붉은 색과 청색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복장낭은 불화의 제작과 봉안에 필수적 요소로 반드시 제작되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예는 많지 않다. 현전하는 복장낭은 대부분 조선후기에 제작된 것들이지

---

1 홍윤식(1986). 佛像·佛畫에 있어 腹藏物의 意味. 文化財, 제19호. 문화재관리국, p.37.

2 남권희(2011). 불복장(佛腹藏)과 납입물(納入物). 至心歸命禮, 韓國의 佛腹藏. 수덕사 근역성보관. p.278.

3 복장낭에 주목한 연구로는 다음이 참고가 된다.
李英淑(2004). 仙巖寺 掛佛과 腹藏囊 에 대한 考察. 文化史學, 21. 한국문화사학회. pp.875-898.
이용윤(2016). 조선후기 佛畫의 腹藏 연구. 美術史學硏究, 289. 한국미술사학회. pp.121-154.
李宗洙(2003). 靑銅腹藏囊의 新例 -腹藏文 내용을 중심으로-. 美術資料, 69. 국립중앙박물관. pp.133-142.

4 복장낭은 족자형 불화 이외에 깃발이나 만장의 형태로 제작된 불번(佛幡)과 보살번(菩薩幡) 등에도 걸어 사용했는데, 기록으로는 1469년(예종1) 명나라 왕과 왕후가 불번을 서울 흥천사(신흥사)에 만들어 보낸 일이 있으며, 현존 유물 가운데 편년이 가능한 것으로는 1857년 제작된 밀양 표충사 「나무대성인로왕보살번(南無大聖引路王菩薩幡)」과 「나무인로왕보살번(南無引路王菩薩幡)」이 있다(그림4 참조).

5 이용윤(2016). 위의 논문. pp.124-125.

만 제작연대를 확정할 수 있는 유물이 다수 확인되고 낭(囊)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미술사적 의의를 고찰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현전하는 불화 복장낭의 형태적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복장낭의 의미를 불교적 관점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Ⅱ. 복장낭의 현황과 유형

현재까지 알려진 조선후기 복장낭 가운데 편년이 확인되는 유물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불화 복장낭은 전국에 걸쳐 확인되지만 주로 경북과 전남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시간적으로는 18세기 전반부터 19세기 말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 불화 제작의 유행과 함께 복장낭의 조성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1. 조선후기 불화 복장낭의 현황[6]

	명칭	연대	소재지/소장처	길이 (cm)	비고
1	봉정사 아미타회상도 복장낭	1713	경북 안동시 봉정사	34.2	비단/가죽
2	지장사 괘불 복장낭	1722	경북 의성군 지장사	73	청동
3	봉림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복장낭	1724	경북 영천시 봉림사/은해사성보박물관	23.5	비단
4	송광사 불조전 오십삼불도 복장낭	1725추정	전남 순천시 송광사	24	비단
5	구룡사 삼장보살도 복장낭	1727	강원 원주시 구룡사/월정사박물관	-	직물
6	갑사 삼세불도 복장낭	1730추정	충남 공주시 갑사	30	비단/동경
7	불영사 영산회상도 복장낭	1735	경북 울진군 불영사	44	비단
8	해인사 명부전 지장보살도 복장낭	1739	경남 합천군 해인사	39.6 39.9	종이/비단 2점
9	흥국사 삼장보살도 복장낭	1741	전남 여수시 흥국사	35	종이
10	흥국사 삼장보살도(持地菩薩) 복장낭	1741추정	전남 여수시 흥국사	32	비단
11	선암사 괘불 복장낭	1753	전남 순천시 선암사	60	비단
12	축서사 괘불 복장낭	1768	경북 봉화군 축서사	-	비단

6 현전 불화 복장에 대한 18-19세기 복장낭의 수는 상당수이나 연대가 확인된 것 그리고 현재 실물이 확인된 것만을 정리하였다.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2002-2013). 한국의 사찰문화재를 주로 참조하였다.

	명칭	연대	소재지/소장처	길이 (cm)	비고
13	남장사 괘불 복장낭	1783	경북 상주시 남장사	78	비단/동경
14	직지사 괘불 복장낭	1803	경북 김천시 직지사	55	비단/종이
15	용문사 신중도 복장낭	1867	경북 예천군 용문사	30~38	종이/비단 3점
16	보광사 시왕도 복장낭	1872	경기 파주시 보광사	37.6	비단
17	용화사 독성도 복장낭	1879	전남 담양군 용화사	20	비단/2점
18	용화사 신중도 복장낭	1882	전남 담양군 용화사	19	비단/2점
19	해인사 원당암 아미타회상도 복장낭	1890	경남 합천군 해인사 원당암	31.8	종이

복장낭의 크기(길이)는 불화의 주제나 용도와 상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후불탱과 같은 교화용 불화의 복장낭보다는 괘불과 같은 예배용 또는 야외 의식용 불화의 복장낭이 더욱 크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화폭의 크기와 복장낭의 크기가 일정한 기준과 비례에 따라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정확한 양상을 살피기 어려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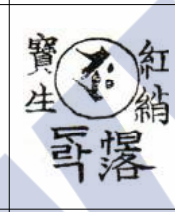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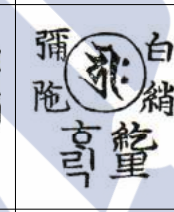
복장낭의 기본 재료는 비단을 비롯한 직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가죽과 종이, 그리고 청동의 금속도 사용되었다. 청동으로 제작된 지장사 괘불 복장낭은 현재까지 다른 예를 확인할 수 없는 희귀한 사례이다.

복장낭의 형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상단의 뚜껑과 하단의 주머니 형태로만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갑사 삼세불도 복장낭이나 남장사 괘불 복장낭에서 보이듯이 뚜껑 부분의 동경이 실로 연결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그러므로 조선후기 불화의 복장낭은 실로 연결된 동경과 뚜껑 그리고 복장물을 넣는 주머니(囊)와 하단의 술장식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뚜껑은 중앙의 반원형 돌기와 양쪽 좌우의 뿔 모양의 귀가 달린 형태를 띠고 있어 삼산관 또는 금강저의 고리모습을 닮은 형태로 보기도 한다.[7] 이러한 뚜껑의 형태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공주 마곡사 대원암 오백나한전 신중도(1910) 후령통

7 李英淑(2004). 앞의 논문. p.880.

표 2. 『조상경』[8]의 후령통 사방주와 진심종자

	동	남	서	북	중앙
사방주					-
	ā	ma	ra	ha	
진심종자					
	hūm	traḥ	hrīḥ	aḥ	vāṁ

한편, 뚜껑에는 범자를 쓰고 있는데 지장사 괘불 복장낭의 '옴(𑖌𑖼𑖽, 唵, Oṃ)'자를 비롯하여 남장사 괘불 복장낭과 직지사 괘불 복장낭에서도 확인되나 옴자 이외의 글자는 현재 판독이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남장사 괘불 복장낭의 경우는 뚜껑과 주머니에 모두 범자를 새긴 것으로 진언(眞言, 다라니)일 가능성도 있다. 보통의 후령통에는 『조상경(造像經)』에 따라 후령통 밖의 사면에 사방주(四方呪)를 써서 방위를 표시하고 뚜껑에는 4방위를 따라서 진심종자(眞心種字)를 각각의 방위에 차이나 잘못이 없도록 쓰는데 사방주는 동남서북을 뜻하는 아(𑖀, ā), 마(𑖨, ma), 라(𑖭, ra), 하(𑖳, ha)를 쓴다(그림 1, 표 2). 이러한 후령통의 조성 방법이 복장낭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 같지는 않다.

색상은 주로 하단 주머니는 황색, 상단 뚜껑 부분은 녹색의 직물을 이용하였는데, 봉정사 아미타회상도 복장낭, 봉림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복장낭, 구룡사 삼장보살도 복장낭, 선암사 괘불 복장낭, 직지사 괘불 복장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색상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하단 황색과 상단 녹색을 기본으로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유형(1), 표 3).

이러한 형태의 불화 복장낭은 1735년 제작된 불영사 영산회상도 복장낭부터 하단 술 장식이 세 갈래로 길게 늘어지는 형태(유형(2), 표 4)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유형(2) 복장낭에서 상단의 동경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동경이 사라졌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복장물을 넣는 주머니가 작아지고 이에 따라 뚜껑도 왜소해지고 있다. 뚜껑의 독특한 모

8 유점사본 『조상경』(1824년 판본)을 참조하였다.

그림 2. 남해 용문사 복장낭[9]

그림 3. 하동 쌍계사 복장낭[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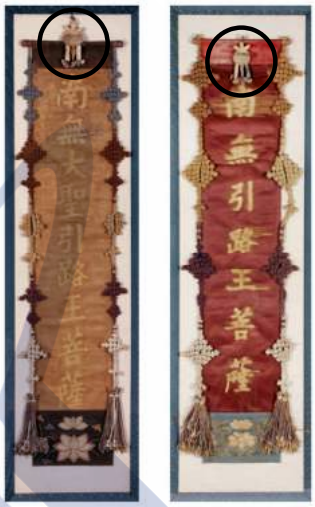


그림 4. 밀양 표충사 보살번 (1857년)[11]

양도 가운데가 넓고 둥글며 좌우가 좁고 뾰족한 모양과 달리 중앙과 좌우 뿔의 크기와 모양이 거의 동일한 크기와 형태로 변화하여 화형(花形)을 띠고 있다. 용화사 독성도 복장낭에서는 화형이 더욱 화려해지는 변화도 확인된다. 색상에 있어서는 황색-녹색의 기본에서 벗어나 적색-청색, 황색-적색, 분홍 단색 등으로 다양해지며 하단 술 장식과의 조화도 고려되고 있다. 한편 남해 용문사와 하동 쌍계사에는 청색의 뚜껑과 적색의 주머니로 구성된 복장낭이 전하고 있다(그림 2, 3). 청색-적색 조합의 복장낭은 남장사 괘불 복장낭과 색상 조합과 반대이지만 남장사 괘불 복장낭이 18세기 후반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복장낭 상하 색조합관계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주로 불·보살도에서는 [표 3]과 같은 유형(1)의 복장낭이 주로 제작되고 신중도, 시왕도, 독성도 등에서는 [표 4]와 같은 유형(2)의 복장낭이 제작되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유형(2)의 복장낭은 조선후기에 제작된 많은 불·보살 번(幡)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1857년에 제작된 밀양 표충사 「나무대성인로왕보살(南無大聖引路王菩薩)」번과 「나무인로왕보살(南無引路王菩薩)」번이 있다(그림 4의 ○부분). 따라서 족자형의 불화나 깃발 모두 복장물을 봉안하기 위한 공간이 없다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18세기 이후 등장한 유형(2)의 복

9 그림출처 :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2009).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남도 Ⅰ-1. p.424.
10 그림출처 :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2009).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남도 Ⅰ-2. p.109.
11 그림출처 :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2010). 한국의 사찰문화재.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Ⅱ-2. p.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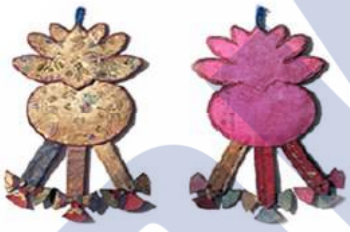
장낭의 형태는 19세기에 불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야외 의식 행사에 사용되는 번에도 생명력과 상징성을 부여하는 의미로 제작되고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 조선후기 불화 복장낭의 유형(1)[12]

봉정사 아미타회상도 복장낭 (1713)	지장사 괘불 복장낭 (1722)	봉림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복장낭 (1724)	송광사 불조전 오십삼불도 복장낭 (1725추정)
구룡사 삼장보살도 복장낭 (1727)	갑사 삼세불도 복장낭 (1730추정)	흥국사 삼장보살도 복장낭 (1741)	흥국사 삼장보살도 (持地菩薩) 복장낭 (1741추정)
선암사 괘불 복장낭 (1753)	축서사 괘불 복장낭 (1768)	남장사 괘불 복장낭 (1783)	직지사 괘불 복장낭 (1803)

12 그림출처 : 선암사 괘불 복장낭(李英淑(2004,6), 축서사 괘불 복장낭(李宗洙(2003)) 외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2002–2013). 한국의 사찰문화재.

표 4. 조선후기 불화 복장낭의 유형(2)[13]

불영사 영산회상도 복장낭 (1735)	해인사 명부전 지장보살도 복장낭 (1739)	용문사 신중도 복장낭 (1867)	보광사 시왕도 복장낭 (1872)
			
용화사 독성도 복장낭 (1879)		용화사 신중도 복장낭 (1882)	해인사 원당암 아미타회상도 복장낭 (1890)

한편, 복장낭의 유행은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가 있다. 남해 용문사 건륭25년(1760)명 운판(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29호, 그림 5)은 명문에 따르면 1760년 진주 백천사(百泉寺)에서 제작된 것을 1837년 남해 용문사에서 구입한 것으로[15] 일반적인 구름무늬가 아닌 화염무늬를 주위에 돌리고 하단은 원형, 상단은 중앙에 보주형과 좌우 뿔 모양의 형태로 마치 앞에서 살펴본 유형(1)의 복장낭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림 5. 남해 용문사乾隆25년명 운판(1760년)[14]

원래 운판은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청동판으로써 구름

13 그림출처 :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2002–2013). 한국의 사찰문화재.
14 그림출처 :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2009).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남도 Ⅰ–1. p.419.
15 "乾隆二十五年庚辰五月日 晋州百泉寺, 道光十七年丁酉二月日 買得南海竜門寺」".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2009).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남도 Ⅰ –자료집. p.206에서 인용.

모양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범종, 법고, 목어와 함께 치는 의식 용구이다. 운판은 불교사물의 하나로 중생교화의 상징성을 내포하며 특히 허공에 나는 날짐승을 위한 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해 용문사 운판은 화염문이 장식되어 있지만 당시 유행한 전형적인 운판의 형태와는 다르고 오히려 복장낭의 형태와 유사성이 매우 강한 유물로서 조선후기 복장낭의 유행과 신앙의 영향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Ⅲ. 복장낭의 기능과 의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복장낭은 불화의 복장물을 담는 주머니로 동경, 뚜껑, 주머니, 술장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편년이 가능한 유물을 통해 볼 때 18세기 이후 유행하였으며, 두 가지 유형으로 전개되었다. 그동안의 복장낭에 대한 연구가 주머니 안에 납입한 복장물, 특히 발원문(또는 복장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복장낭의 기원과 상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시론적 의미에서 현전하는 조선 후기 복장낭의 기능, 독특한 구조와 형태, 개별 유물의 특징을 통해 조선후기 복장낭의 상징적 의미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복장낭의 기능은 회화작품인 불화가 종교적 예배 대상물로서의 상징성과 생명력을 갖게 되는데 필수 요소인 복장물을 담는 것이다. 복장물로는 후령통과 후령통을 감싸는 황초복자가 중심이며 이외에 각종 다라니와 발원문 등이 포함된다. 이들 복장물은 조선후기 널리 유포된『조상경』에 따라 대체로 규범화된 절차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불복장과 달리 외부로 드러나는 복장낭의 경우 장식성이 두드러지는 결과를 낳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문양과 색상이 있는 비단을 주로 사용하였고 특이한 예로 청동으로 재료를 삼아 제작하였으며, 색상의 조화와 술장식 등을 통해 장식성을 가미하였다. 이는 예배 대상에 대한 장엄과 공양을 통한 실천행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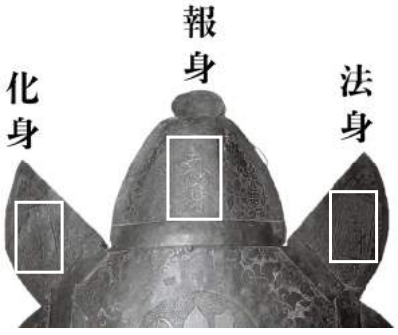


그림 6. 지장사 괘불 청동 복장낭 뚜껑과 명문

복장물의 형태적 특징과 관련하여 지장사 괘불 복장낭의 뚜껑 부분에는 중앙에 보신(報身), 향좌측에 법신(法身), 향우측에 화신(化

身)이라는 여래 삼신의 명문을 새겨 놓았다(그림 6). 이를 삼산형(三山形)[16]으로 보기도 하는데 실제 이러한 형태가 불교에서 말하는 법·보·화 삼신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언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다만 지장사 괘불 복장낭과 관련 기록들에서 괘불에 표현된 불신이 법·보·화 삼신의 일체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새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17] 해당 불화의 도상과 관련 짓는 것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다른 복장낭의 뚜껑에서는 이와 같은 명문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장사 괘불 복장낭 뚜껑에 새겨진 명문만으로 복장낭의 형태적 기원을 살피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복장낭의 전체 모양과 구조를 통해 좀더 면밀한 관찰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먼저, 복장낭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동경에서 거울을 뜻하는 한자 '경(鏡)'은 달, 특히 명월(明月)을 의미하기도 한다. 불교에서 거울은 전생의 선과 복, 악과 악업을 비춘다고 하여 종교적 실천행의 결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되었다. 고려시대 이후 동경의 뒷면에 범자나 진언을 새긴 예가 많아 불교의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장사 괘불 복장낭의 동경은 국화문과 원권문 안에 범자 진언(眞言)이 새겨져 있는데 진언은 석가모니의 깨달음이나 서원을 나타내는 말로서 악귀를 항복시키고 사악한 기운을 없애며 그 자체로서 부처를 상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복장낭에 동경을 함께 매단 것은 복장의식의 청정함을 나타내고 동시에 불화에 생명력을 넣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믿음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범자와 진언은 복장낭의 중요한 장식 요소이다. 남장사 괘불도 복장낭이나 직지사 괘불 복장낭, 하동 쌍계사 복장낭에는 주서(朱書)나 금서(金書) 또는 금직(金織), 혹은 묵서로 진언이나 범자를 쓰거나 지장사 괘불 복장낭처럼 범자를 돋을 새김한 경우가 있다.

한국 불교에서 범자와 진언은 불교의 민중적 성격과 대중화의 일환으로 널리 유포되었는데, 고려와 조선시대의 불경, 와전, 석탑, 부도, 고분, 도자기, 향로, 동종, 동경, 풍탁, 금고, 불화, 목조건축, 칠기, 불상과 복식, 복장물 등 다양한 유물에 범자와 진언이 새겨지게 되었다.[18] 이러한 범자와 진언 가운데 단독으로 쓰이는 옴(𑖌𑖼, 唵, Oṃ)자는 모든 문자를 대표하여 무량한 공덕이 있다고 믿었으며, 일체 소리의 근본이요, 본질이자 귀결로서 일체 모든 법이 이 한 글자에 귀속한다고 해석하였다.[19] 이후 옴자는 다양한 위신력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되어 옴자를 아는(知) 것으로 소망이 이루어지고, 옴자를 외우는(念) 것으로 적정(寂靜)·불로·불사·무외(無畏)에 도달 할 수 있으며, 옴자를 외치는

16 李宗洙(2003). 앞의 논문. p.133.
17 李英淑(2004). 앞의 논문. p.880.
18 엄기표(2011). 고려~조선시대 梵字眞言이 새겨진 石造物의 현황과 의미. 역사민속학, 제36호. 역사민속학회. pp.44-45.
19 운허용하(2002). 불교사전. 동국역경원. p.629.

그림 7. 지장사 괘불 복장낭의 옴자[20]

그림 8. 옴자와 복장낭의 비교

(唱) 것으로 윤회를 벗어나 해탈에 이르고 옴자를 무수히 비는(萬呪) 공덕으로 10세(世)의 부모와 자손이 청정해진다는 믿음이 생겨났다. 이처럼 옴자를 관상(觀想)하는 것은 최상의 만다라이며, 염송(念誦)하는 것은 일체 대명의 근본이자 보조(普照)와 경문(經文)을 얻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옴자에는 불교의 근본 원리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도 이해하게 되었다.[21] 그러므로 복장낭에 보이는 옴자는 최고의 진리를 상징하는 상징체, 그 자체를 표현하는 법신(法身)으로 진여(眞如)의 법을 표출하는 불교 근본 원리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불화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부처를 상징화하는 복장낭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장사 괘불 복장낭이나 하동쌍계사 복장낭의 뚜껑 중앙에 새겨 넣은 옴자를 주목해보면, [그림 7]의 옴자 자체(字體)는 실담체(悉曇體)이다. 옴자는 실담 12자모의 중 아·오·마의 합성어로 『진언집(眞言集)』과 조선후기의 여러 실례에서 변화를 보이는데 글자 위의 앙월점(仰月點, 그림 7의 □부분)도 그중 하나이다. 앙월점은 아래 부분의 달과 위 부분의 보주형 장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복장낭의 뚜껑과 동경으로 이루어지는 부분과 의미가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앙월점 아래 부분에서 옴자의 중심을 구성하는 오(𑖌𑖼, 奧, O) 자는 유지(留持)의 뜻으로 일체의 본질을 의미하는데, 복장낭에 불화의 생명줄과 같은 오색사(五色絲)와 연결되는 후령통이 들어가는 점에서 볼 때, 복장낭의 주머니 부분과 의미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8]과 같이 옴자와 복장낭을 비교하면 앙월점≒동경+뚜껑, 오(𑖌𑖼)≒주머니의 등식을 상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복장낭의 형태는 옴자가 가지는 종교적, 신비적, 주술적, 상징적 의미가 투영된 모습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복장낭에 새겨진 글씨나 발원문에서 복장낭의 제작이나 시주를 통해 얻고자 했던

20 그림출처 : 李宗洙(2003). 앞의 논문. p.135.

21 엄기표(2013). 寶珠形 唵(𑖀𑖾𑖨, Oṃ)字 圖像의 전개와 상징적 의미에 대한 試論. 禪文化硏究, 14. 韓國佛敎禪理硏究院. pp.378-379.

현세이익적 구복 신앙을 확인할 수 있다. 1722년 제작된 지장사 괘불 복장낭에는 뚜껑에 옴자를 새기고 주머니 부분에 시주자의 이름(金起漢, 張氏)을 새겨 놓았는데, 복장낭에서 출토된 발원문(복장문)에는 '함께 성불하여(共成佛道)[22], 오복을 누리고, 극락세계에 오르길 기원하며, 또 삼재에 들지 않고 모든 화를 없애고, 보리(菩提)를 이루어 정각에 든 후에 무변법계(無邊法界), 즉 불법의 세계에 이르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한다(歸命禮)'고 구체적인 소망을 밝히고 있다.[23] 1890년 제작된 해인사 원당암 아미타회상도 복장낭의 뒷면에는 복장낭을 시주한 재가신자의 발원 묵서가 있다. 발원문은 한글로 쓰여졌는데 그 내용은 「곤명갑진셩, 강시○○○, 슈명장슈」이다. '곤명(坤命)'은 발원문에서 여자 또는 태어난 해를 이르는 말이며, '슈명장슈'는 글자대로 수명장수(壽命長壽)이다. 풀이하면 '갑진생의 강씨는 수명장수를 기원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복장낭을 시주하면서 본인의 수명장수를 바라는 현세이익의 구체적 구복을 직접적으로 이름을 드러내면서 기원하였다. 이를 통해 복장낭 자체를 신앙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장낭은 옴자를 형상화한 것으로 복장낭 자체가 불법과 최고의 진리, 불교의 근본 원리를 상징한다는 종교적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복장낭은 수행의 방편이자 제재초복(除災招福)의 현세이익적 기원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불도(佛徒)들로 하여금 깨달음과 성불의 길을 안내하는 복합적인 의미와 상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24]

Ⅳ. 맺음말

이제까지 조선 후기 복장낭의 출토 현황과 제작연대를 살펴보고 복장낭의 형태적 변화와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조선 후기 복장낭 가운데 편년이 확인되는 유물은 19점으로 주로 경북과 전남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시간적으로는 18세기 전반부터 19세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복장낭은 실로 연결된 동경과 뚜껑 부분,

22 '共成佛道'의 발원은 울진 불영사 영산회상도(1735), 합천 해인사 지장보살도(1739), 해인사 원당암 아미타회상도(1890)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불화 화기(畵記)에 등장하는 기본 서원(誓願)이다.

23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皆共成佛道 亦願檀那杖此勝緣生亨五福之壽化作極楽之界親見白玉毫蒙其受記祈願緣化諸師助緣同參遊喜等因此功德三灾不入諸厄消除不退菩提成等正覺然後願無邊法界有誠含灵周遊毘盧法性海虛空有 盡願不盡願已願已發願已歸命禮"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2008).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북도 Ⅱ-자료집. p.342에서 인용.

24 엄기표(2013). 앞글, pp.382-383

그리고 복장물을 넣는 주머니 부분과 하단 술장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뚜껑과 술 장식의 변화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중앙의 반원형 돌기와 뿔 모양의 좌우 귀 부분을 특징으로 하는 유형과 뚜껑부분이 꽃모양으로 변하고 하단의 술장식이 세 갈래로 길게 늘어지는 유형이다.

복장낭의 기능은 회화 작품인 불화가 종교적 예배 대상물로서의 상징성과 생명력을 갖게 하는 복장물을 담는 것이다. 복장낭은 외부로 드러나기 때문에 점차 색상을 비롯한 장식성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그 가운데 범자와 진언은 복장낭의 중요한 장식 요소로서 주목된다. 특히 옴(𑖌𑖼, 唵, Oṃ)자는 불교에서 최고의 진리를 상징하는 상징체로서 복장낭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옴자와 복장낭의 형태적 유사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복장낭의 형태는 옴자가 가지는 종교적, 신비적, 상징적 의미가 투영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발원문을 통해 볼 때, 조선 후기 복장낭은 그 자체로서 불법과 불교의 근본 원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신앙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는 깨달음과 성불의 길을 안내하는 복합적인 의미와 상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불도로서 예배 대상에 대한 장엄과 공양을 통한 실천행의 결과라고 하겠다.

이 연구는 복장낭만을 다룬 시론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더 많은 복장낭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보다 면밀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남권희(2004). 불복장(佛腹藏)과 납입물(納入物). 至心歸命禮, 韓國의 佛腹藏. 충청남도:수덕사 근역성보관.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2002-2013). 한국의 사찰문화재. 대전:문화재청;서울:문화재연구소

엄기표(2011). 고려~조선시대 梵字眞言이 새겨진 石造物의 현황과 의미. 역사민속학, 제36호. 역사민속학회.

_____(2013). 寶珠形 唵(𑖌𑖼, Oṃ)字 圖像의 전개와 상징적 의미에 대한 試論. 禪文化硏究, 14. 韓國佛敎禪理硏究院.

운허용하(2002). 불교사전. 서울:동국역경원.

이영숙(2004). 仙巖寺 掛佛과 腹藏囊에 대한 考察. 文化史學, 21. 한국문화사학회.

이용윤(2016). 조선후기 佛畫의 腹藏 연구. 美術史學硏究, 289. 한국미술사학회.

이종수(2003). 靑銅腹藏囊의 新例 -腹藏文 내용을 중심으로-. 美術資料, 69. 국립중앙박물관.

태경(2006), 조상경. 서울:운주사.

홍윤식(1986). 佛像·佛畫에 있어 腹藏物의 意味. 文化財, 제19호. 문화재관리국.

A Study of Current Status and Significance of the Ensouling Pouch Hung on Buddhist Paintings in the Late Joseon Dynasty

Oh, Ho-seok
Seok Ju-seon Memorial Museum, Dankook university

Abstract

Sacred objects hidden inside a statue of the Buddha or hung on Buddhist painting (called "Bokjang" in Korean) are the products of religious ritual service to grant symbolic meaning as the objects of faith by giving infinite vitality to the statue of the Buddha or the Buddhist painting. For those scared objects hidden inside, an ensouling pouch was made to put sacred objects in for scroll-type Buddhist paintings including large Buddhist painting for outdoor rituals. Only 19 ensouling pouches were identified with their year of production and they were found mainly in Gyeongbuk and Jeonnam provinces. In terms of production time, they were persistently produced from the early 18th century to the end of 19th century.

The function of an ensouling pouch was to put the scared objects that gave symbolic meaning and vitality to a Buddhist painting to be served for in a religious ritual service. Since an ensouling pouch was disclosed outside, ornamental function was strongly emphasized. Of the functions, Sanskrit and Mantra were the important factors of an ensouling pouch. In particular, Om (唵, Oṃ) is the symbolic object that symbolizes the best truth of all in the Buddhism and represents the meaning of the ensouling pouch quite well. The form of an ensouling pouch reflects the religious, mysterious, and symbolic meaning of Om(Oṃ) letter.

Meanwhile, reading the wish statement of a prayer, it is suspected that ensouling pouch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were accepted as symbols of the principles of

Buddhist and Buddhism and recognized as the target of the religious service. Eventually, ensouling pouch shows the complex meaning and symbols that guide the path to the enlightenment and attaining Buddhahood. It is a result of practical service as a Buddhist through showing respect and offering to Buddha.

Keywords : Buddhist painting, Ensouling pouch(腹藏囊), Sanskrit, Oṃ

간행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복식』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간행횟수) 『한국복식』은 매년 5월과 12월 총 2회 간행한다.

제3조(논문투고)

① 제출된 원고는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고 심사가 완료된 원고만 게재한다.

② 공동 필자일 경우, 제1필자와 구분해서 표기해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한국복식』의 편집과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인은 박물관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회는 편집인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그 자격은 전문연구자로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편집인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투고 논문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과 기타 편집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제5조(논문심사)

심사에 통과된 논문에 한해 발행인은 『한국복식』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편집규정을 따른다.

제6조(지적소유권)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박물관에 귀속된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

제7조 본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규정

제1조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약함)의 학술지인 『한국복식』의 편집과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투고 논문은 다음의 심사 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① 분야, 분량, 형식 등의 적합성 여부 검토.

②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 평가.

제3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

②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③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최종 판정.

제4조 편집위원회를 통과한 논문은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심사를 받는다.

① 심사위원진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 과정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③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심사위원은 다음 절차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절차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소정양식에 기재한다.

② '게재불개(D)'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심사는 1회로 한정한다.

(2) 평가기준

① 논문의 독창성

② 학문적 기여도

③ 논문체계와 서술의 논리성
④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
⑤ '원고작성지침'의 준수 여부

제6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 처리한다.
① A·A·A/A·A·B : 게재
② A·A·C/A·B·B/A·B·C/B·B·B/B·B·C : 수정 후 게재
③ A·A·D/A·B·D/A·C·C/A·C·D/A·D·D/
B·B·D/B·C·C/B·C·D/C·C·C/C·C·D : 수정 후 재심사
④ B·D·D/C·D·D/D·D·D : 게재불가

제7조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논문 게재의 可·否를 통보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존의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9조 본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투고규정

1. 투고대상

투고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에는 연구 논문, 자료 및 연구동향 소개 등이 포함 된다. 박물관 소장 자료에 대한 연구결과도 게재될 수 있다.

2. 투고 요령

① 투고논문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정한 원칙대로 작성된 원고를 다음 주소로 발송한다(접수 : ckafka@dankook.ac.kr).

②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논문의 제목과 투고자 인적사항(이름, 소속, 직위)은 국·영문으로 병기한다. 공동연구인 경우 주저자는 맨 앞에 넣고, 교신저자는 기호(*)로 표시한다.

③ 논문을 투고할 때는 통용 가능한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줄 간격 160, 글자크기 11, 신명조, 편집용지는 한글 2007 이상 기본 꼴). 이때 논문의 저자명은 기재하지 않는다.

④ 각주·참고문헌·기타 자료 인용과 표 작성을 비롯한 자세한 원고작성 요령은 『한국복식』 원고 작성 지침을 참조한다.

3. 원고채택 및 영문초록 작성

① 매호 간행 2개월 전에 도착한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심사 절차(편집규정 참조)를 거친 뒤 게재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② 심사가 완료된 논문에 국문 및 영문 저자명(교신저자 표시)과 소속을 기재하고 워드프로그램 파일로 제출한다. 논문이 영문인 경우에는 영문 저자명과 소속만 기재한다.

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경우, 필자는 국문 초록과 200 단어 이내의 영문 초록, 5개 이상의 국·영문 핵심어, 참고문헌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4. 기타

①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한국복식』해당호 3부와 별쇄 10부를 필자에게 제공한다.

②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므로 타 인쇄물에 사용할 경우 본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본 학회에 보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투고자는 논문 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문의 및 연락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한국복식』편집위원회
전화 : (031) 8005-2393 전자우편 : ckafka@dankook.ac.kr

참고문헌 작성 규정

본문에서 인용한 출처를 표시할 때는 '각주' 인용 방식을 사용하고, 본문에서 인용된 출처의 전체 목록을 맨 마지막에 참고문헌으로 표시한다.

1. 본문에서의 인용 방법

1) 주는 각주(脚註)로 처리한다.
2) 두 가지 이상의 참고문헌을 참고할 경우 저자이름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서 또는 알파벳 순서로 처리한다.
3) 같은 해에 여러 편 발표한 동일 필자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 연도 뒤에 ㄱ, ㄴ, ㄷ… 또는 a, b, c…를 붙여 구분한다.
4) 동양 지역 간행본의 경우, 간행연도는 서기로 환산하고 특정연대는 괄호로 처리한다.
5) 전게(前揭) 논문은 「앞글」, 전게서(前揭書)는 『앞책』 또는 Ibid. 이라 쓰며, 인용되는 자료는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그림의 출처 인용
   인용되는 그림과 표 등의 시각적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힌다. 출처는 본문 속에서 표시된 그림(Fig.)제목 밑에 「From. 저자.(연도).p.-.http://www.costumeculture.or.kr」 또는 「출처. 저자.(연도).p.-.http://www.costumeculture.or.kr」로 표기하고 참고문헌에는 참고문헌 정리양식에 따라 출처를 표기한다.

2. 참고문헌 정리양식

(1) 학회지

① 저자가 두 명 이하인 경우

[예] Pavio, A., & Chun, J.(1994). Perceptional comparisons. Journal of Social Issues, 72(3), 524-536.

② 저자가 3명 이상인 경우

[예] Horowits, L. M., Post, D. L., French, R. S., Wallis, R. D., & Siegelman, E. Y.(2003). The Prototype in Abnormal Psychology. Memory &

Cognition, 42(1), 62-75.

(2) 신문, 잡지 기사

① 저자가 있는 경우

[예] Gardner, H.(2006, 12. 11.). Do babies sing a universal song? Psychology Today, pp. 70-76.

② 저자가 없는 경우

[예] Study finds free care used more.(2007, April). APA Monitor, p. 15.

(3) 서적

① 저자가 개인인 경우 : 저자(연도). 책 제목. 출판도시 : 출판사.

[예] Frings, G. S.(2008). Fashion from concept consumer(9th ed.). Seoul: Sigmapress.

② 저자가 기관인 경우 : 기관명(연도). 책 제목. 출판도시: 출판사.

[예] Korean Psychiatric Association(200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Seoul: Suhaksa.

③ 저자가 없는 경우 : 책 제목(연도). 출판도시: 출판사.

[예] College bound seniors(1979). Princeton, NJ: College Board.

④ 번역서인 경우 : 원저자명이 표제면에 기재된 경우에는 원저자명과 발행연도를 먼저 기재하고, 역자명은 책 제목 다음 괄호( )안에 적는다.

[예] Cowell, A. R.(1986). The fashion theory (J. Yoon, Trans.). Seoul:Sigma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73)

(4) 편저에 포함된 인용문인 경우

[예] Letheridge, S., & Cannon, C. R.(Eds.)(2004). Bilinguel education: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New York: Praeger.

(5) 영어가 아닌 책 : 저자(연도). 책 제목[영어번역]. 출판도시 : 출판사.

[예] Praget, J., & Inhelder, B.(2006). La genése de l'idée de hansard chez l'enfant [The Origin of the idea of danger in the child].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Hong, N. Y., Shin, H. S., & Choi, J. H.(2008). 아시아 전통복식 [Traditional Costumes of Asia]. Paju: Kyomunsa

(6) 학술대회 발표논문

① 발표논문집이 발간되는 경우 : 저자(연도). 논문제목. 책 제목, 권, 페이지.

[예] Thumin, F. J., Craddick, R, A., & Birclay, A. G.(2010). Meaning and compatibility of a proposed corperate name and symbol. Proceeding of the 81st Annual Convention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8, 835-836.

② 발표논문집이 발간되지 않은 경우 : 저자(발표연월). 논문제목. 행사명, 도시.

[예] Brener, J.(2005, October). Energy, information, and the control of heart rat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Psychophysiological Research, Madison, WI.

(7) 학위논문

① 박사학위논문

[예] Choi, G. M.(2004). Helplessness, depression, and mood in endstate renal disea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② 석사학위논문

[예] Peterson, J. F.(2009). Effective management train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8) 재인용하는 경우, 참고문헌에는 본인이 참고한 재인용 문헌을 기재한다.

(9) 인터넷 자료는 URL전체를 기재한다.

[예] Hilts, P. J.(1999, February 16). In forecasting their emotions, most people flunk out. New York Times. Retrieved November 21, 2000, from http://www.nytimes.com.

(10) 법조항

① 판례인용

[예] Lessard v. Schmidt, 349 F. Supp. 1078 (E. D. Wis. 1972).
Durflinger v. Artiles, 563 F. Supp. 322 (D. Kan. 1981). aff'd, 727 F.2d 888 (10th Cir. 1984).

② 법령명은 띄어쓰기를 하며 「 」안에 표시한다.

[예] 「Mental Health Systems Act」. (1988). 42 U.S.C. § 9401.

(11) 특허

특허를 받은 발명가의 이름, 특허 정보를 검색한 공식출처를 기재한다.

[예] Smith, I. M.(1988). U.S. Patent No. 123,445. Washington, DC: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12) 비디오/ 필름

[예] Mass, J. B.(Producer), & Gluck, D. H.(Director).(1979). Deeper into hypnosis [film].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3.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한국복식』 연구윤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복식』 간행규정 및 편집규정에 따른 연구윤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논문의 신규성 및 작성원칙

제3조(논문의 신규성) 투고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와 저서 등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단, 기존의 논문을 확대발전시킨 것은 그 사실을 병기하여야 한다.

제4조(인용방법) ① 논문과 저서 등을 인용할 때에는 "원고 작성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인용하여야 한다.

② 전자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학술적인 권위가 인정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만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전자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자료명칭 등을 병기하고, 가급적 URL과 접속일자를 표기해야 한다.

제5조(제재) ① 투고논문이 제3조, 제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는 개별적인 심사 없이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서면으로 투고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 등을 7일 내에 통고하여야한다.

③ 투고자는 통지를 받은 후 15일 내에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이의가 없으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

④ 이의를 받은 편집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투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게재 논문의 사후 심사

제6조(사후심사) 『한국복식』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사후심사의 요건)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후심사를 하여야 한다.

① 대상 논문이 그 논문이 수록된 본 『한국복식』 발행일자 이전의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②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될 만한 내용을 현저한 정도로 표절 또는 중복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제8조(사후심사요청서의 접수) ①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사후 심사를 요청하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는 밀봉하고 겉봉에 '사후심사요청'임을 명기하되, 발신자의 신원을 겉봉에 노출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사후심사요청서의 개봉)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이 개봉한다.

제10조(사후심사요청서의 요건)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 4 장 사후 심사의 절차와 방법

제11조(사후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질의서의 우송) 편집회원회의 심의 결과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편집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의 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제13조(답변서의 제출) 위 제12조의 질의서에 대해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후 30일 이내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엔 당사자가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 5 장 사후심사 결과의 조치

제14조(사후심사 확정을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편집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사후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5조(사후심사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확정한 사후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사후심사를 요청한 이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 편집위원회에서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① 연구원 홈페이지 및 차호 『한국복식』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한다. 『한국복식』 전자판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② 해당 논문 필자는 향후 5년간 본지에 원고 등을 투고할 수 없다.

제 6 장 제보자의 보호

제17조(제보자의 보호) 표절 및 중복게재에 관한 이의 및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심사 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제보자 보호 규정의 위배에 대한 조치) 위 제17조의 규정을 위배한 자는 향후 5년간 본지에 원고 등을 투고할 수 없다.

제 7 장 이의 절차

제19조(이의당사자) ① 표절 또는 중복게재 등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 및 게재자와 신청자는 석주선기념박물관장에게 각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신청자는 그 사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위원의 위촉) 관장은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판정을 내린 편집위원 등은 위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21조(절차) ① 편집위원장은 판정과 관련된 자료를 관장에게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절차는 제4장과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확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장 보 칙

제23조(규정의 개정) ①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3인 이상이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재적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4조(보칙) 이 규정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복식』 논문 투고 신청서

<table>
<tr><td>투고권호</td><td colspan="2">제 집</td><td>접수번호</td><td></td><td>접수일</td><td></td></tr>
<tr><td rowspan="2">제 목</td><td>국 문</td><td colspan="5"></td></tr>
<tr><td>영 문</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Keywords
(5개 이내)</td><td>국 문</td><td colspan="5"></td></tr>
<tr><td>영 문</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5">제1저자
(주저자)</td><td>이름(한글)</td><td></td><td>이름(영어)</td><td colspan="2"></td></tr>
<tr><td>소 속</td><td colspan="4"></td></tr>
<tr><td>전화번호</td><td></td><td>휴대폰</td><td colspan="2"></td></tr>
<tr><td>e-mail</td><td colspan="4"></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5">공동저자1</td><td>이름(한글)</td><td></td><td>이름(영어)</td><td colspan="2"></td></tr>
<tr><td>소 속</td><td colspan="4"></td></tr>
<tr><td>전화번호</td><td></td><td>휴대폰</td><td colspan="2"></td></tr>
<tr><td>e-mail</td><td colspan="4"></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공동저자2
성명, 소속
전화번호</td><td colspan="6"></td></tr>
</table>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지에 게재될 경우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이 가지게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대표저자 : **(인 또는 서명)**

*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오.**
* **보내실곳** :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Tel : 031)8005-2389, Fax : 031)8021-7157, E-mail : ckafka@dankook.ac.kr

투고관련 사항

주소 및 연락처

우편번호 : 16890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전화번호 : 031-8002-2393
F a x : 031-8021-7157
E - mail : ckafka@dankook.ac.kr (채정민)

韓國服飾　　第38號

찍은 날　2017年　12月　24日　印刷
펴낸 날　2017年　12月　30日　發行

發　行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TEL : (031) 8005-2389, 2390
FAX : (031) 8021-7157

印　刷　호진커뮤니케이션즈
TEL : 02-723-7741~2
FAX : 02-723-7743